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3월 10일 일요일 서머타임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9년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이 3월 둘째주 일요일인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1시간 빠르게 바뀐다. 토요일 밤 잠들기 전에 시계를 한시간 앞으로 돌려놓고 자는 것이 좋다. 시간을 앞으로 돌려야 할지 뒤로 돌려야 할지 혼동이 되면 'Spring forward Fall back'으로 기억하면 쉽다.

서머타임 기간에는 보스톤을 비롯한 미동부 지역의 한국과의 시차가 현재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든다. 일몰이 지금보다 한 시간 늘어나 야외활동 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1시간 정도 더 갖게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서머타임이 반가워진다.

hsb@bostonkorea.com

3.1운동이 일어난 9일 이후인 3월 10일자 보스톤 글로브 1면 모습. 이날 8면 하단에 <한국 독립선언>이란 제목의 기사를 해외 전보(cablegram) 소식을 받은 샌프란시스코발 단신으로 게재했다(오른쪽 사진)

9일 이후인 3월 10일자에 8면 하단에 <한국 독립선언>이란 제목의 기사를 해외전보(cablegram) 소식을 받은 샌프란시스코발 단신으로 게재했다. 이 보도는 "300만명의 한국전국독립연맹은 3월 1일 오후 1시를 기해 독립을 선언했다" 밝히고 있다.

보스톤글로브는 3월에만 7일간 9쪽지에 걸쳐 3.1운동에 대해 자세히 전하고 있다. 대부분 단신이지만 3월 17일자에서는 >>2면으로 계속

백년전 보스톤글로브 3.1운동 40여차례 보도

1919년 3.1운동 9일 후 3월 10일 첫 보도 전국적 비폭력 무저항 운동 아시아에 영향 상당기간에 거치 지속적인 민중봉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의 대표 일간지 보스톤글로브(당시 보스톤데일리글로브; Boston Daily Globe)가 1919년 한해동안 한국의 3.1운동을 30일에 걸쳐 36차례 보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코리아가 3.1운동 1백주년을 맞아 1919년 한해동안 보스톤 글로브의 한국관련 보도를 조사한 결과 보스톤 글로브는 3.1운동이 일어난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최고 가격에 원진 한국
4/12 보스톤-인천 직항 취항

보스톤-인천 직항항공권 \$1,199~

NEW 2019 고국관광 패키지 예약가능!

IACE TRAVEL 617.424.8956
info@iace-travel.com | www.iace-usa.com | 영문시행 | 항공 및 12시간 인터넷 예약 서비스 (ET)

Newstar JB Realty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주택 | 콘도 | 커머셜 CENTURY 21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아일린 박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00년전 보스턴 글로브 3.1운동 40여차례 보도

▶▶1면에 이어서

〈한국 월슨에 도움 호소〉라는 제목으로 1면과 2면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3월 중순으로 들어가면서 일본 헌병과 경찰의 잔혹성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내용이 상당수 차지한다. 경찰이 소녀의 손목을 칼로 잘랐다(3월 15일자 7면)는 잔혹한 진압내용은 물론 잔혹한 구타와 고문 그리고 교회에서 독립운동지사들을 살해한 후 불태웠다는 내용(6월 21일자 11면) 등이 주를 이뤘다.

4월 20일자 선데이글로브 42면에서는 첫문장에 “일본의 잔학성과 고문이 독일군이 벨기에에서 행했던 잔학성을 넘어서고 있다” 고 지적했다.

보스턴 글로브는 7월 16일자에 8면에 선교사인 프리미어 하라(Premier Hara)씨의 서신을 바탕으로 3.1운동 6주동안 391,000명이 살해당하고 8만여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사에서 7월 들어 민중봉기는 점차 차고있다고 상황을 설명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100주년

3.1절 경축사에서 역사학자 박은식의 통계치를 인용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202만여 명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며 "7500여 명의 조선인이 살해됐고, 1만6000여 명이 부상당했다. 체포·구금된 수는 무려 4만 6000여 명에 달했다"고 말해 상당한 오차가 있음도 드러냈다.

보스턴글로브의 3.1운동에 대한 보도는 3월에서 10월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3.1운동이 한국의 종교계, 그리고 모든 학생들 많은 한국인들이 참여해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음을 글로브도 보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애정과 사랑으로 3.1운동을 지켜봤지만 일부는 일본의 손을 경우도 있었다. 보스턴 글로브의 일부 보도에 등장한 한 선교사 대한민국의 아직 제대로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같은 나라라고 이야기 하며 일본으로 인해 개화됐다는 내용을 전했다. 또 한 감리교회 목사는 한국은 민족 자결을 논할 자격이 없으며 일본의 자결을 위한 러시아를 향한 길목에 장애가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스턴글로브 3.1절 및 독립관련 보도

1919년 3월 10일자 8면	1919년 4월 29일자 10면
1919년 3월 15일자 4면, 7면	1919년 5월 16일자 17면
1919년 3월 17일자 1면, 2면	1919년 6월 5일자 7면
1919년 3월 20일자 17면	1919년 6월 11일자 11면
1919년 3월 25일자 7면	1919년 6월 20일자 14면
1919년 3월 28일자 7면, 12면	1919년 7월 9일자 6면
1919년 3월 31일자 8면	1919년 7월 16일자 8면
1919년 4월 3일자 2면, 12면	1919년 7월 17일자 13면
1919년 4월 11일자 2면, 16면	1919년 7월 25일자 2면
1919년 4월 13일자 1면, 10면	1919년 8월 21일자 11면
1919년 4월 14일자 4면	1919년 8월 22일자 8면
1919년 4월 18일자 15면	1919년 9월 1일자 4면
1919년 4월 20일자 41면	1919년 9월 2일자 10면
1919년 4월 21일자 9면, 11면	1919년 10월 14일자 12면
1919년 4월 26일자 7면	1919년 10월 15일자 8면

보스턴글로브는 그러나 40여차례 보도에서 3단 단신을 벗어난 경우는 불과수차례에 불과해 한국에 대해 관

심있는 사람 이외에 일반 미국인들이 주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턴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정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중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보스톤대학의 특별한 3.1절 100주년 기념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대학(Boston University) 신학대가 한인들이 말하지 않았어도 3.1운동 100주년을 기억했다.

보스톤대학 신학대 한인학생회(회장 심상욱)는 마시체플(Marsh Chapel) 옆 신학대 325호에서 3.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 및 기념식을 7일 가졌다. 신학대학 매리 엘리자베스 학장과 다나 로버트 교수, 최희안 교수 등 신학대 교수진 한인학생회 소속 학생들 및 신학대 학생들 그리고 이유택 BU 경영대 교수 및 경영대 학생들이 참여했다.

BU신학대가 3.1절 기념행사를 가진 것은 100년만의 처음으로 추정된다. 이 기념식은 신학대이자 역사학자로 신학대에 재직 중인 다나 로버트 교수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역사학자인 자신이 100주년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힌 로버트 교수는 “BU신학대와 한국은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져오고 있으며 3.1운동은 커다란 격동기이자 큰 고통이었다. 나는 학생들과 한인 역사학자들을 알고 있고 크리스찬으로서 이 운동으로 사망했거나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 기념 예배 및 기념식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심상욱 한인학생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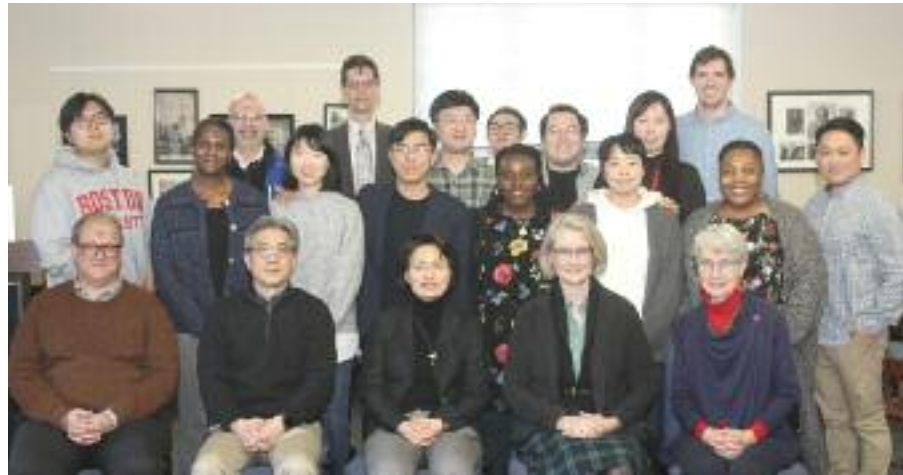
예배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엘리자베스 학장, 다나 로버트, 최희안 교수등과 학생들은 3.1절과 관련된 고난, 그리고 기억들을 나누었다.

3.1운동 당시인 100년 전에 보스톤 대학에 유학하던 유일한 한인인 의학을 공부하던 양유찬이었다. 양유찬은 서재필이 1919년 창립한 한국친우회 보스톤지부를 앞장서 만들었다. 한국친우회 보스톤 지부는 1920년 1월 20일 BU 독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슬립퍼홀 오디토리움(Sleeper Hall Auditorium)에서 개최했다.

BU 신학대의 코리아디아스포라프로젝트(Korean Diaspora Project)의 한국독립운동 기록에 따르면 당시 보스톤대학의 총장이었던 레뮤얼 멀린(Lemuel Murlin)씨가 한국친우회 보스톤지부 회장을 맡았으며 고종의 비밀측근이자 한국선교사 그리고 타임스 통신원이었던 호머 B 헐버트(Homer B. Hulbert)씨도 이 집회에 참여했다. 심지어 중국 유학생과 일본 유학생들마저 이 집회에 참여했다.

슬립퍼홀오디토리움은 과거 871 커먼웰스 애비뉴에 위치했으며 현재는 보스톤대학 일반연구대학(College of General Studies)이 들어서 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대학 신학대학 한인학생회 주최 3.1절 100주년 예배 및 기념식. 매리 엘리자베스 신학대학장, 다나 로버트 신학대교수, 최희안 신학대 교수 그리고 이유택 보스톤 경영대 교수 등 교수진과 신학대, 경영대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100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제안한 다나 로버트 교수



SAT Plus Spring Schedule 2019

All Classes Starting March 16th(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AM - 11:00AM	3/16 - 5/25
SAT II Chemistry/AP Chemistry	11:30AM - 1:30PM	3/16 - 5/25
SAT II Biology/AP Biology	2:00PM - 4:00PM	3/16 - 5/25
SAT II MATH IC	5:00PM - 7:00PM	3/16 - 5/25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July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8 - 7/26	Mon-Fri
Chemistry(Preview)	1:00 PM - 3:00 PM	7/8 - 7/29	Mon/Wed/Fri
Biology(Preview)	4:00 PM - 6:00 PM	7/8 - 7/29	Mon/Wed/Fri

August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5 - 8/23 Mon-Fri
SAT II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1:00 PM - 3:00 PM	8/5 - 8/23 Mon/Wed/Fri
	4:00 PM - 6:00 P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3.1절 기념식 참전용사와 함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100주년 삼일절 기념행사를 3월 3일 오후 3시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에서 개최했다.

130여명이 참여한 기념식에서 국민 의례 후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학생 3명이 새롭게 개역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이재영 한인회장은 참석한 한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3.1절 행사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김용현 총영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대독했다.

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장 이길자 박사는 삼일운동 당시 여성운동가들의 활동을 설명했고 김종선 교수는 현재 분단된 조국에 대해 역사적 교훈과 경제통일로서의 통일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기념식은 삼일절 노래와 정정욱 박사의 선창으로 만세 3장을 하며 생시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임원, 김용현 총영사 내외 및 영사관 직원, 한국전참전용사들, 각 교회 및 성당 목회자 및 성도들 그리고 로드아일랜드 거주 한인들이 참여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 한인회와 각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떡, 식혜, 수정과로 저녁을 함께 나눴다.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가 로드아일랜드 중앙교회에서 참전용사들과 함께 3.1절 기념행사를 가졌다



새로개역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학생들

현직한인회장단 미주총연합회 정상화 촉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 각 지역 한인회장들의 모임인 현직한인회장단이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박균희, 이하 미주총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직 한인회장들은 2월 2일과 3일 댈러스에서 '제3차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회의' 를 갖고 9개의 정상화 요구 조항을 발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주총연과 별도의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한인회장들은 1. 정회원 및 선거인 명단과 정회원 자격공개 2. 정회원 자격상실 사유 공개 3. 현직 한인회장 4명 선관위 참여 4. 계류 중인 모든 법정 소송 중단 등 9개항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채택한 한인회장은 LA, 뉴욕, 시카고 등 35여명이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버몬트 한인회 신세준회장이 참석해 결의안을 보스톤코리아에 전달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2011년 회장선거를 둘러싸고 이어진 내홍으로 한국정부로부터 분규단체로 지정됐고,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초청도 받지 못하는 제 역할과 거리가 멀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미주 한인들과의 소통노력이 부족한 단체로 한인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각 한인회들과 공조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이번 결의안을 통해 드러났다.

버몬트 한인회 신세준 회장은 "미주총연에 대해 이번 예야 알게 됐다. 관심의 차원에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었는데 응답요구일인 3월 5일까지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관장으로 **에브리타임** 활력충전!

3월 31일 까지

Event 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Mild 100g 증정

Event 2



홍삼돈 골드, 홍천옹 구입시
홍삼돈 마일드 10파우치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박진영 대표 한인회장 후보지원 철회

딸 물음에 마음 돌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 한인회장 후보 지원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했던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 대표가 “한인사회의 분열음을 최소화 하고자” 지원을 철회했다.

박 대표는 3월 1일 전화로 한인회장 출마 지원을 철회하고 선거에 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선거관리위원회와 보스톤코리아에 전달했으며 3월 5일 다시 이 의사를 확인했다. 철회를 이야기 하는 박 대표는 답했다.

박 대표는 “보스톤코리아와의 지면 인터뷰 등에서 밝혔듯이 한인사회의 분열을 일으키면서까지 한인회장 선거를 강행할 의사가 없으며, 조금이라도 화합하는 한인사회를 만들고자 후보지원을 철회”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한 “한인회장에 출마했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한인사회 어른 분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공백을 메우고자 했던 것”이라며 “입원진이 상당부분 구성됐으며 한인회장 역할 수행의사가 확실해 보이는 장우석 후보가 한인회장직을 맡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두 번째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2월 18일 한인회관에서 선거위가 구성될 당시에도 “한인회장 출마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으며 추후 보스톤코리아의 확인에서도 “좀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박 대표는 선거위의 후보 지원서류 요구에 응해 프로필을 포함한 지원서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자신의 고민 그리고 가족과의 논의 끝에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 대표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재관위 주요 관계자들은 2월 28일 박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박 대표에게 공탁금 지원 등 의사를 밝히며 출마를 권유했으나 박대표가 확고하게 불출마 방침을 밝히면서 설득에 실패했다.

박 대표가 불출마 결심을 굳히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가족들의 의사였다. 2년전 부인의 반대로 한인회장 추천을 거부했던 그는 이번엔 부인의 지지를 확보했으나 딸이 “아빠 꼭 한인회장 출마해야 돼?” 라는 질문에 무너졌다.

결국 가족의 반대라는 이유를 들은 재관위 주요 관계자들도 박 대표의 생각에 뜻을 같이 할 수 밖에 없었다.

editor@bostonkorea.com



김동원 치과원장(사진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 앤도버 자택에서 열린 장우석 후보(사진 앞쪽 왼쪽에서 4번째) 지지모임에 참석한 지지자들

한인회장 후보 장우석 변호사 후원모임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인회장 후보로 나선 장우석 변호사를 지지하는 모임이 개최한 후원의밤 행사에 약 25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총 \$2200불의 선거자금을 모았다.

김동원 치과원장의 앤도버 소재 자택에서 3월 2일 개최된 이날 모임의 진행은 장우석 후보 지지모임의 박찬모 씨가 맡았다. 박 씨는 한인사회에 한인회가 필요한 당위성 및 한인회 역사를 간단히 설명했으며 장우석 후보는 한인회장 출마의사 및 한인회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후 후보자와 지지자들간의 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 지지자들은 고 김희순 평통

위원이 사랑하던 막걸리로 다함께 한인사회 봉사를 약속하면서 건배했다. 참가자들은 밤 11시까지 한인회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장우석 후보진영은 현재 준비된 공탁금과 후원 행사에서 걷힌 금액 및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 지지금 등을 모두 선거 관련 진행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내역은 선거 후 지지자들에게 전달하신 분들께 전달할 계획이다.

기획 및 홍보 담당 윤나씨는 “3월 2일 폭설 우려 속에서도 많은 사람이 참여해 지지 모임은 성공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973.88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고려대학교 뉴잉글랜드 교우회(회장 김명근, 건축 91)는 지난 3월 2일 저녁 브루클라인(Brookline)의 브룩하우스미팅홀에서 2019년 첫 정기 모임을 가졌다. 뉴잉글랜드 고대 교우회는 수학경시 대회, 독도 에세이 공모, 한글 학교의 글짓기 등의 행사를 꾸준히 후원해 오고 있다

뉴잉글랜드 고대 교우회 첫 정기 모임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고려대학교 뉴잉글랜드 교우회(회장 김명근, 건축 91)는 지난 3월 2일 저녁 브루클라인(Brookline)의 브룩하우스 미팅홀에서 2019년 첫 정기 모임을 가졌다.

이날 오후까지 내린 눈으로 교통이 힘든 상황에서도 5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하여 저녁 식사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여러 교우들과 가족들을 환영하고 이야기 꽃을 피우며 성황리에 모임을 마쳤다.

이번 모임에서는 교우회내 2000학년 이사의 소모임인 '영타이거즈' 교우들이 대거 참여하여 모임에 활력을 보였다. 교우회 총무겸 영타이거즈 회장인 전인택 교우(재료 03)가 귀국전

마지막으로 교우회에 참석해 교우들의 아쉬운 격려를 받았다.

한영상 교문(법학69)과 최재원 교우(법학83)가 즉석에서 지난 8년간 영타이거즈와 교우회간의 다리역할과 행사준비 등의 역할을 맡았던 전인택 교우의 송별회자리를 제언, 모든 교우들을 초대하였다. 장소와 시간은 추후 따로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교우들은 올해 9월 예정된 뉴잉글랜드지역 고연전 골프대회준비와 함께, 이 모임이 친목도모 이외에 지역 사회의 의미있는 일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뉴잉글랜드 고대 교우회는 수학경시 대회, 독도 에세이 공모, 한글 학교의 글짓기 등의 행사를 꾸준히 후원해 오고 있다.

교우회 임원진으로 박가영 교우(화학96)가 부회장, 고영복 교우(법00)가 회계를, 전인택(재료 03), 이종은 교우(환경 07)가 각각 총무를 맡아 교우회 일을 돌보고 있다. 교우회 행사는 봄과 가을 매년 두번의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름동안 진태원(축산75) 전 뉴햄프셔 한인회장의 캠프장에서 양궁, 국궁, 카누 등을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비정기 모임도 매년 계획하고 있다.

교우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김명근 (617-501-2587, myoungkim@gmail.com), 전인택 (857-998-3318, ingome22@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는 제7회 연례 전시회에 참여할 작가를 모집하고 있다

한미예술협회 연례 미술전 참여 작가 모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정정욱, 회장 김병국)는 올해 10월 12일(토)부터 10월 25일(금)까지 렉싱턴에 위치한 아트 앤드 크래프트 소사이어티에서 열리는 제7회 연례 전시회에 참여할 작가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미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며, 5월 11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의 전시는 "빛"을 주제로, 단어에서 오는 영감으로 창작된 새 작품들을 전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info@kcsboston.org로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산악회 정기 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가 뉴햄프셔 소재 클라우즈 허트 호수(Lake of the Clouds Hut, 5032 ft)로 3월 16일 토요일 겨울 정기산행을 떠난다. 산행지는 당일 날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산행 거리는 왕복 6.2마일이고 산행시간은 5시간이다. 난이도는 5단계 척도법 중 4이다.

산행 준비물은 겨울산행으로 방한복, 방풍의, 방한장갑, 고글, 배낭, 등산화착용, 아이젠(Clampons), 겨울 모자, 스틱, 각반(Gaiters, Spats), 식수와 간편 중식 등이다. 티셔츠 및 청바지 등 면으로 된 옷은 착용을 금지한다. 회비는 20불이며 뉴햄프셔 2번출구 파크앤라이드에 오전 7시까지 집결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3월 14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해야 산행이 가능하다. 신청 및 문의는 617-780-9588 (김혁신)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덴고 꺾은 트래한 의원 부정 선거자금 의혹

선거막판 남편회사 자금 지원 받은 정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인 2세 덴고를 꺾고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로리 트래한(45)이 지난해 9월 예비선거(민주당 경선)에서 불법 선거자금 사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스톤 글로브는 선거자금 사용과 관련 트래한 의원의 설명이 모호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3월 3일 인터넷 판에 보도했다. 트래한 당시 후보는 2018년 예비선거 막판 자신의 개인대출을 통해 \$371,000을 조달했었는데 이 돈의 출처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제3지역구 예비선거를 2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덴고 후보는 19%로 선두를 달렸고 기포드와 이탈리아인 후보는 6%차이를 뒤쫓았다. 트래한은 단지 8%인 4위로 뒤쳐져 있었다. 트래한 후보 선거본부는 당시 수십만불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끌어들이었으며 막판 TV 광고를 급격

하게 늘렸다. 선거일에는 마침내 덴고 후보를 12표차로 누르고 승리했으며 11월 총선에서는 공화당 후보를 여유 있게 누르고 당선됐다.

2018년 여름에 보고된 재정보고에 따르면 트래한 후보는 37만여불 규모의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게 보스톤글로브의 지적이다. 트래한선거본부가 보고한 내용에는 당시 남편과의 공동은행계좌에 약 \$15,000정도가 있었을 뿐이었다. 총선이 끝난 후 보스톤글로브는 선거자금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트래한은 이후 선거자금 재정보고서를 무려 4차례나 수정했다. 부부공동계좌와 \$71,000에 달하는 휴이퀴톤을 더 첨가했다.

보스톤 글로브는 37만여불의 대출 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전달된 불법선거자금일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브의 요청에 따라 트래한의 선거재정보고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로리 트래한(45)이 지난해 9월 예비선거(민주당 경선)에서 불법 선거자금 사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를 검토한 워싱턴 DC의 재정전문가 어대브 노티씨는 트래한 선거본부가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보고했거나, 성공적인 건축사업가인 남편이 그녀에게 준 불법 선거자금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선거법은 후보에게 기부하거나 후보자 개인의 개인 어카운트에서 나온 자금 또는 은행대출인 경우 선거본부에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를 포함해 그외 어떤 사람으로부터 \$2,700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로리 트래한의 선거자금 공개에 따르면 트래한의 남편 데이비드 트래한의 회사산하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남편 데이비드 트래한이 중요한 재정적 후원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래한

측은 남편에게서 자금이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있다. 트래한측은 은행기록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트래한은 선거자금 공개원칙인 선관위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8년 12월까지 10만불에서 25만불 사이의 공동 은행 계좌를 보고하지 않았다. 선거본부 대변인은 25만불의 계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회 윤리법의 제한인 \$200 이상의 이자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도 선거법은 \$5,000 이상의 계좌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트래한 선거본부는 이와 관련 어떠한 부정행위도 부인했다. 트래한 선거본부 대변인 그레첸 그로스키씨는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하원 규정에 철저히 따랐으며 공개해야 하

는 것은 모든 것을 공개했다” 고 강조했다.

노티씨는 트래한의 재정보고는 너무 많이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어디에서 선거자금이 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재정공개법을 재정한 이유는 후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는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라고 그는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자금 위반 시 민사 벌금형을 내리거나 형사혐의로 법무부에 수사의뢰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불법 선거자금 기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의도적인 위반인 경우 위반을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덴고 후보는 12표차로 패배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어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엔들링스, 최후 개체들, 연극 엔들링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송민정 기자 = 케임브리지의 아메리칸 레퍼토리 극장. 이 극장은 새로운 미국 연극을 실험하고 고전적인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2003년 타임지가 미국 3대 최고 극장으로 선정된 이 극장에서 셀린 송(송하영) 극본, 새미 캐놀드 연출, 연극 '엔들링스(Endlings)'가 인기리에 공연되고 있다. (해녀에 대한 이야기라, 다소 생소해서 관객들이 적을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많은 관객들로 공연장은 공석을 찾기 힘들었다.) 연극은 한국 만재도의 세 명의 해녀 한솔, 고민, 숙자와 미국 뉴욕에 사는 하영(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연출의 새미 캐놀드는 해녀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제주도에 가서 해녀들을 만나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열정이 넘쳤다. 연출자의 열정과 작가 셀린 송의 예술적 재능이 빛을 발한 이 작품은 해녀로서 평생 섬에 살며 생계를 위해 바다에서 물질을 하며 살아가는 해녀들의 이야기로 막이 열린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등

재 됐지만, 이제는 점점 사라져 가는 엔들링스(Endlings), 최후 개체로서의 해녀들의 삶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미국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거기에 주목할만한 점은 이 해녀들의 삶을 리얼하게 보여 주기 위해 무대에 작은 바다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바다속 해녀들만의 세상을 보여 주고 그 바다에서 수영을 하며 낚아 올린 바다의 부산물들을 어깨에 메고 등장하는 배우들의 사실적인 연기는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감동과 경탄을 자아낸다. 또한, 그녀들의 고된 삶이 배어 있는 거칠고 유머 넘치는 입담은 연극을 생동감 넘치고 유쾌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 그녀들의 삶을 미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여 주는 대사들은 매우 실제적이다. 연극 1막의 중간부터는 뉴욕에 사는 작가 하영의 이민자로서의 삶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맨 하트에서 아시안 희극 작가로서 살아 남기 위한 고군분투와 한국에서 캐나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두 번의 이민을 했던 작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같은 복잡한 내면의 이야기를 들려 준다. 어찌 보면 섬이지만, 너무나 다른 두 섬에서 극



케임브리지 소재 아메리칸 레퍼토리 극장에서 공연중인 셀린송의 연극 '엔들링스' 해녀역을 열연하고 있는 배우들의 모습

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아시안 여성들의 혼란과 아픔, 고민의 이야기들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곳에서 맞닿아 있다. 작가 셀린 송은 연극가이드북에 쓴 글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한국인 입에도 연극의 해녀처럼 한국인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또한 내가 캐나다인 과 미국인 입에도 완전히 캐나다인 과 미국인이라고도 느끼지 않는다.' 우리 자신조차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걸 작가는 말하고 싶은 것 아닐까?

또 하나 이 연극을 보면서 느낀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주는 삶의 다름이다. 가이드북에 개재한 셀린 송의 글 제목은 'Location, Location, Location' 이었다. 작가가 장소(Location)에 대한 메시지를 연극의 수많은 메시지 중 중요하게 갖고 있음을 알게 하는 부분이

다. 연극 속에서 동료 해녀 숙자의 시신 앞에서 독백하는 고민의 대사.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멋진 자동차를 사서 운전할 거야. 여기선 운전 면허증도 없었지만, 말야. 난 내가 운전을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결국 섬에서 살면서, 해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녀나 두 번이나 이민을 했던 작가 또한 우리가 사는 어떤 장소의 희생자들이였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이들은 운명처럼 그것을 받아 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삶을 개척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각자의 삶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고 딱히 정체성을 정의할 수도 없는 하나의 최후 개체 엔들링스로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3월 17일 까지 공연, www.americanrepertorytheater.org) jinjusong@bostonkorea.com



Please join us at the Korean Air Open House!!

Why: On the spot interviews will be taking place from 11AM -2PM on Wednesday March 13th, Thursday March 14th.

Requirements: Must speak/write English, speak Korean plus Must have 1 year of customer service experience (Face to Face)

***Available Shift Time: 9:15am-1:30pm

Where: Swissport USA
175 William F. McClellan Hwy
Boston, MA 02128
Phone Number:
617.283.7290



****The ability to work for any employer in the US without sponsorship is requir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테슬라 모델 3를 보스턴 근교 샬럼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완벽하게 재조립한 리치 베누아씨(36, 오른쪽 사진)

취미로 \$6500에 테슬라 모델3 재조립 남성 유튜브 화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홍수로 바닷물에 잠긴 테슬라 모델 3를 보스턴 근교 샬럼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완벽하게 재조립한 남성의 유튜브가 화제다. 리치 베누아씨(36)는 자신의 재조립경험담을 유튜브로 공유했으며 약 423000여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확보했을 정도다.

보스턴의 IT업계에서 일하는 베누아씨는 침수된 모델 3를 \$14,000에, 또 충돌로 폐차된 다른 모델 S를 \$15,000에 각각 구입, 이차들을 분해한 후 중복된 부속품을 약 \$23,000에 팔았으며 이를 통해 단 \$6500만 자신의 돈을 투자하게 됐다.

유튜브 전기차 조립계의 슈퍼스타인 그는 친구의 테슬라차를 시승하고는 즉각 사랑에 빠졌다. 그는 테슬라야말로 테크놀로지와 자동차의 조합 다시 말해 자동차 바퀴위에 랩톱컴퓨터를 조합한 듯한 느낌을 가졌다.

테슬라의 신형 모델 S는 기본 사양 \$76,000에서 시작해 최고가는 \$133,000에 달한다. 그는 3년 전 신형 테슬라 대신 침수된 모델 S를 뉴저지 폐차장에서 \$14,000에 구입했다.

그는 테슬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 모든 부품을 완전히 분해했다.

대부분의 모르는 것들은 구글하면 금방 찾을 수 있지만 테슬라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정보도 없었다. “선구자” 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테슬라는 베누아씨에게 차의 재조립 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를 거부했다. 테슬라에 부품을 주문했으나 테슬라는 해당 사외에 어느 누구도 테슬라를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부품 공급도 거부했다.

테슬라는 보스턴글로브에 편지를 통해 “폐차된 테슬라를 부적절하게 수리하거나 테슬라 부속품이 최초 디자인된 의도와 다르게 사용됐을 경우 심각한 안전에 우려가 있으며 테슬라차가 수리공은 물론 도로의 다른 운전자에게도 위험을 줄 수 있다” 고 경고했다.

베누아씨는 테슬라의 경고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든지 자신이 소유한 것을 고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속품을 구하기 위해 충돌로 인해 폐차된 테슬라 모델 S를 한 대 더 구입했다.

그는 두차를 현대의 차로 조립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조립과정에서 알아가는 모든 것을 유튜브 채널, 리치

리빌즈(Rich Rebuilds)에 올렸다. 이 유튜브 비디오는 때론 몇백명이 보고 했었다.

일년이 넘는 수리과정 그리고 여러 번의 난관을 겪으면서 베누아씨는 첫 번째 차를 거의 새차와 유사하게 고쳤다. 비디오 61번에서 그는 매사추세츠주인 스페션을 통과했으며 비디오 62번에서는 총 비용이 \$650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디오 제목을 “세계에서 가장 싼 테슬라” 라고 붙였다. 그리고 순식간에 1백만뷰를 돌파했다. 지금은 거의 4천만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조립한 테슬라를 타고 있으며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테슬라 소유주들을 돕고 있다. 테슬라는 워터타운과 데드햄 두곳에만 수리 공장이 있으며 부품 부족은 물론 오랜 수리 대기 시간에 대한 불평이 있어왔다.

리치 베누아씨는 이에 따라 동부쪽에 첫 전기차 수리샵을 개장할 계획이다. 현재 이 샵은 뉴햄프셔 시브룩에 건축중에 있으며 과거 테슬라 정비공들도 그와 함께 합류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푸시업 40개 심장질환 가능성 확 낮춰

푸시업 능력이 최고의 심장질환 측정방법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푸시업을 40개 이상 할 수 있는 중년 남성은 10개 이하의 푸시업 밖에 할 수 없는 남성에 비해 각종 심혈관질환의 발병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보건대학 환경건강부 레이던트인 저스틴 양 박사는 “푸시업 능력이야말로 가장 저렴한 심장질환 위험 측정 수단인 것으로 연구 결과 드러났다” 고 말하고 “놀랍게도 푸시업 능력은 최소 러닝머신(트레이드밀) 검사보다 훨씬 강력하게 심장질환 위험과 연관되어 있다” 고 덧붙였다.

지난 2월 15일 JAMA Network Open에 출판된 이번 연구는 푸시업 과 심장질환의 연관성을 밝힌 첫 번째 연구로 연구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04명 소방관의 건강자료를 분석했다. 소방관들의 평균 연령은 39.6세, 신체지수(BMI)는 28.7이었다. 연구진은 시작당시 이들의 푸시업 능력과 최소트레이드밀지구력 훈련능력을 먼저 측정한 이후 매년 신체 검사

와 건강 관련 질문을 병행했다. 10년간의 연구기간동안 37건의 심장질환이 발생했으며 한명을 제외한 36명이 최초 조사에서 40개 이하의 푸시업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었다. 연구원들은 40개 이상의 푸시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10개 이하의 푸시업을 하는 사람에 비해 심장질환이 9% 낮은 것을 발견했다. 또한 푸시업 능력과 낮은 심장질환과의 연관성은 최소트레이드밀테스트의 측정을 통한 에어로빅 능력보다 훨씬 강했다.

다만 연구진들은 연구 대상이 중년이며 직업적으로 활발한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 또는 노년층 그리고 활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육체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이며 의사들은 반드시 환자의 운동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것” 이라고 수석 연구원이자 하버드 보건대학원 스테마노 케일스 교수는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한인회장 후보등록 공고

제40대 보스톤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보스톤 한인사회를 이끌어 갈 제 40대 한인회장 후보를 공모합니다.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각 한인 및 미국 단체와 원활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유능하신 분들의 등록을 바랍니다.

1. 후보자 등록 기간

2019년 2월 22일 부터 3월 8일 까지

2. 등록 방법

- 선관위원장이나 총무에게 간단한 이력서와 함께 서면으로 한인회장 후보가 될 의사를 보냄.
후보등록은 공탁금과 함께 2019년 3월 8일 금요일 11시 59분까지 접수되어야 하며 선거위원장과 간사에게 접수된 후보만 심사대상으로 한다.
한선우(선관위위원장) marathoncomputer@gmail.com
이현경(선관위간사) sjks.principal@gmail.com

<공탁금 접수처>

윤철호(한미노인회 회장)선거관리위원
Chul Yoon
96Taft Ave. Methuen MA.01844

- 선거운동에 필요한 선거비용 공탁금은 후보자당 \$5,000으로 하며 Bank Check 으로 제출한다.
제출된 공탁금은 반환 되지 않는다. 선거 후 남은 공탁금은 본 한인회 소속으로 이월 한다.
- 제40대 한인회회장 선거 방식은 직접선거로 진행한다.
- 회장 임기 2019년 4월1일 부터 2021년 3월31일

3. 선출 방법

단수후보일 경우 선관위에서 결정 후 공고 하지만
다수후보일 경우 2019년 3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실시하는 선거 결과에
따라 제40대 한인회장을 선출한다.

선거관리 위원

보스톤 한인회장 선거관리 위원장 한선우(38대 한인회장)
김병국(부위원장, 한미예술협회), 이현경(간사, 재미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
김성혁(한미정치력신장연대), 윤미자(민주평통), 윤철호(노인회),
이경해(시민협회), 장수인(필하모니아 보스톤), 채명희(다문화선교)



유매스 성인 대상 온라인 대학 추진

입학생 줄어 들고 재정 부담은 증가 직장에서 필요한 실무 위주 교육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립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 이하 유매스)의 마티 미한 총장이 지난 4일, 새로운 온라인 대학 설립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다. 온라인 대학을 설립하는 주된 이유는 대학 캠퍼스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부담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대학에 입학하는 연령대의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한 총장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유매스 산하 5개 캠퍼스의 주요 관계자들 및 교수들과 회의를 갖고 온라인 대학 설립안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미한 총장에 따르면 “새로운 온라인 대학은 전적으로 성인 학습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며 매사추세츠 주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미한 총장이 계획하고 있는 온라인 대학은 학위 과정도 제공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하는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현재에서 일을 하

고 있는 직원들과 고용주들의 의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대학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오프라인 캠퍼스에 재투자된다.

2015년부터 유매스를 이끌고 있는 미한 총장은 2018년부터 온라인 교육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미한 총장의 움직임과 함께 주의회

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온라인 대학 설립 자금을 반영하자는 논의가 막 시작한 상태다. 그러나 온라인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계산이나 예산 배정은 아직 전무하다.

유매스 이사회에 따르면 유매스가 추진하는 온라인 대학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혹은 민간 기업으로부터의 대출 형식으로 조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대학이 본 궤도에 오르고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jsi@bostonkorea.com



2015년부터 유매스를 이끌고 있는 마티 미한 총장은 2018년부터 온라인 교육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매사추세츠 주민 10명 중 1명은 자신이 찾아야 할 돈이 있지만, 그 돈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

MA주 휴면 자산 34억 달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재무부에서 아무도 찾지 않아 휴면 상태에 있는 100달러 이상의 자산에 대한 최신 목록을 공개했다. 데브 골드버그 매사추세츠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민 10명 중 1명은 이렇게 자신이 찾아야 할 돈이 있지만, 그 돈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

청구되지 않은 휴면 자산은 개인 소유일 수도 있고 회사 소유일 수도 있다. 오래된 은행 계좌의 잔고나 보험 회사로부터의 지급금, 증권이나 배당금, 혹은 은행 안전 금고 속의 예치금 등

다양한 형태의 휴면 자산이 존재한다.

매사추세츠 주 법에 따라 3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이런 휴면 자산은 매사추세츠 재무부로 귀속된다. 재무부가 현재 잠시 맡아두고 있는 휴면 자산은 34억 달러 이상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휴면 자산은 1억 2천 5백만 달러였다.

자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휴면 자산이 있는지는 www.findmassmoney.com 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jsi@bostonkorea.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축 개업 25주년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올해 메이플 시럽 생산량 높을 듯

날씨에 따라 4-6주 수액 채취 가능 서늘한 날씨 지속되어야 당도 유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새로 수확한 메이플 시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메이플 시럽 시즌이 시작되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보다 메이플 시럽 생산량이 훨씬 많다고 한다.

필드 패밀리 슈거 하우스의 버니 필드는 "작년에는 몇 겔론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제 시작인데, 불과 하루 동안 900겔론의 메이플 수액을 모았다"며 "지금처럼 시원한 날씨가 계속되면 메이플 수액은 달콤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수액의 당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메이플 시럽 시즌은 4-6주 정도

만 지속된다. 따라서 양질의 메이플 수액을 얼마나 많이 채취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필드의 가족은 매사추세츠 서부에서 200년 동안 메이플 시럽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자신만의 상표로 메이플 시럽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메이플 시럽 시즌 기간에는 방문객들이 필드 패밀리 슈거 하우스의 농장을 방문해 메이플 수액이 메이플 시럽이 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다.

40겔론의 메이플 수액을 가공하면 1겔론의 메이플 시럽을 얻을 수 있다. 필드 하우스에서는 매시즌마

다 약 150겔론 정도의 메이플 시럽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200겔론의 메이플 시럽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뉴잉글랜드 지역은 메이플 시럽의 주된 생산지이며, 매사추세츠주에만 300개 이상의 메이플 시럽 생산 비즈니스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메이플을 생산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집 뒤뜰에 메이플 나무를 심고 메이플 시럽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있다.

매사추세츠 메이플 생산자 협회에 따르면 메이플 시럽 시즌 기간 동안 관광객들은 200만 달러 이상을 메이플 시럽과 관련하여 지출한다. 올해는 3월 16일과 17일이 메이플 시럽 위크엔드로 지정되어 많은 농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주에만 300개 이상의 메이플 시럽 생산 비즈니스가 있다



작년 10월 잭팟을 기대하며 메가밀리언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

1조7천 잭팟 수령자 드디어 나왔다

작년 10월 15억4천만달러(약 1.7조원) 당첨 미 역대 최대 일시금 수령...신원은 비공개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작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당첨된 15억4000만달러(약 1조7331억원)달러 메가밀리언 복권의 주인공이 수령 마감시한을 6주 남겨두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당첨금으로 약 1조원을 수령했다.

CNN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 복권위원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미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당첨금을 청구한 사람이 일시금으로 당첨금을 받는 현금 옵션을 선택해 8억7800만달러(약 9881억원)를 받아간다"며 "이는 우승자 1명에게 지급된 역대 최대 지급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당첨자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이고 놀라운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나온 것에 기쁘다"며 "익명으로 남겠다는 당첨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바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사우스캐

롤라이나 법은 복권 당첨자가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메가밀리언 당첨 복권은 작년 10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심슨빌에 있는 편의점 KC마트에서 판매됐다. 해당 복권 구입자는 추첨일로부터 180일인 오는 4월19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해야 했다.

그러나 마감 시한이 가까워져도 당첨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범법자다" "당첨되고 너무 놀라 사망했다" "여러 명이 함께 구입해 현재 소송 중이다"는 등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복권위원회는 성명에서 당첨자가 곧바로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복권위원회는 당첨 복권을 판매한 KC마트가 5만달러(약 5600만원)를 받고, 주 정부도 소득세 6100만달러(약 686억원)를 거두게 됐다고 덧붙였다. sy@news1.kr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부메랑 된 관세폭탄 미국 개국 이래 최대적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폭탄을 무차별적으로 터트렸지만 오히려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는 개국 이래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수입산 철강·알루미늄·태양광 패널·세탁기 등에 관세폭탄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에 집중해 중국 제품 275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성적표는 낙제점이였다. 관세폭탄을 때리기 전인 2017년보다 적자가 더 심해졌고, 일부 항목 적자 폭은 미국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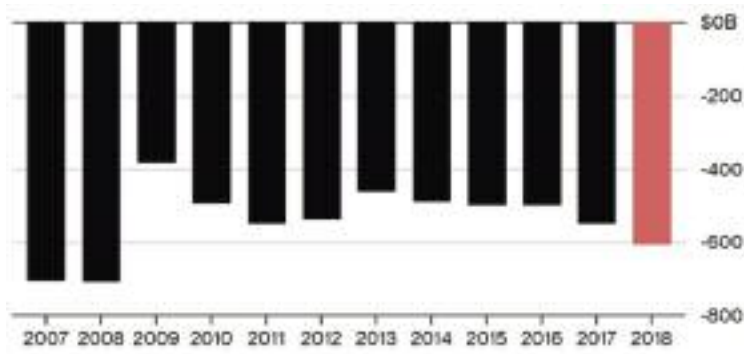
6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상품·서비스 수지 적자는 6210억 달러(701조원)에 달했다. 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7087억 달러)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상품·서비스 수지 적자가 5020억 달러였음에 비춰볼 때 트럼프 대통령 재임 2년 동안 무역적자가 오히려 1000억 달러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 서비스를 제외한 상품수지만 보면 8913억 달러(1006조원)로 243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폭탄을 집중투하한 중국과 상품수지 적자도 지난해 4192억 달러로 오히려 전년보다 11.6% 늘었다.

AP통신은 '무역수지 적자 축소라



미국 무역적자 추이. 빨간색은 예상치 - 블룸버그통신 갈무리

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1000억 달러의 사나이'라고 불려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하원의원인 스탠리 호이어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F'학점을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정책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무역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폭탄에도 무역적자가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및 재정 확대 정책이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해외 상품 수요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도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이에 비해 관세폭탄으로 중국 위안화 가치는 하락해 중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끌어 올렸다. 관세 폭탄이 결국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무역적자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제 구

조를 가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1975년 이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미국인들이 저축은 안하면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또 강달러도 한 몫 한다. 달러 강세는 무역적자를 더 늘린다.

그러나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미국은 달러를 필요하면 더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본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것이고, 미국 경기가 좋으면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계 경기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영국이 세계에 '생산'을 가르쳤다면 미국은 세계에 '소비'를 가르쳤다. 미국이 소비를 해야 세계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에 뿌리 내린 이같은 경제 문법을 무시하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너무 크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관세폭탄을 퍼부었다. 그 결과, 무역적자는 더 늘었다. 그가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하다. sinopark@news1.kr



토요타도 브렉시트 노딜시 영국이탈 러시 동참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3주 앞두고 영국 내 자동차 기업의 이탈이 줄을 잇고 있다. 혼다와 BMW에 이어 토요타가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2023년 이후 영국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요한 반 질 토요타 유럽지사 최고경영자(CEO)는 6일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국에서 수출하는 차량에) 관세가 매겨지는 건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노딜'로 기업 환경이 매우 어려워지면 영국 생산시설 철수가 선택지로 의제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질 CEO는 "철수는 원치 않는다. 생산이나 투자 축소 등 다른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브렉시트 경착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토요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아직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토요타 영국 공장은 부품의 50%를 영국을 제외한 EU 회원국과 터기로부터 조달해 완성차의 90%를 EU회원국에 수출한다

. 지금은 영국이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관세가 없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10%로 오른다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토요타는 현재 영국 중부 버나스톤에 완성차 공장과 디사이드에 엔진 공장을 운영하며 총 3200명을 고용하고 있다. 지난해 버나스톤 공장의 완성차 생산량은 12만 9000대로 영국 자동차 산업의 약 1%를 차지했다.

자동차업체의 영국 공장 철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혼다는 2021년까지 영국 내 주요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고, 닛산자동차도 신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영국 생산 계획을 취소했다. 독일 BMW도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미니 모델을 영국 밖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의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영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약 90만명이 종사하고, 수출액이 전체의 13%인 440억파운드(약 65조원)를 차지한다.

angela0204@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MASS-Drain DRAIN & PLUMBING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최저임금 15달러 법안 하원 위원회 통과...본회 상정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입법 고비였던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본회의는 수주내 이를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공영 방송 npr 등에 따르면 하원 교육노동위원회는 6일 연방내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찬성 28대 반대 20으로 통과시켰다.

'임금을 인상하자 법(raise the wage act)'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보비 스콧 위원장은 "연방 최저임금을 10년 가까이 올리지 않으며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17% 실질 임금삭감으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이 풀타임으로 일하더라도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베드 아파트'는 전국 어디에



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최저임금을 2024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고 미성년, 장애, 팁 받는 직종 등 이른바 '최저하위' 임금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해온 공화당 소속 버지니아 폭스 의원은 "(법이) 전국에 걸쳐 시급 근로자들의 대규모 실직 사태를 부르고 임금 상승이 소규모 업자들을 짓누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민주당이 주도해온 이슈이다. 이에 민주당

이 장악한 하원 통과는 순조로울 전망이다. 하원은 수주내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표는 밝혔다.

한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다만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최저임금 문제는 계속해서 최고 관심 이슈중 하나이다. 2016년 대선서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 주장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다시 대권에 도전하는 등 공화당이라도 이를 외면할 수 없는 주제이다. bello@news1.kr

기자 블랙리스트, 불법이민 취재기자 명단 작성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당국이 중남미 불법이민자 행렬(캐러밴)을 취재한 기자 및 변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캐러밴은 작년 미국 중간선거 최대 쟁점이 됐던 사안이다.

미 NBC 방송은 익명을 요구한 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를 인용, "CBP가 캐러밴과 연계된 언론인과 변호인, 시민운동가 비밀 데이터베이스(DB)를 작성했다"고 6일 보도했다.

명단에는 기자 10명과 변호사, 시

민 활동가 47명이 이름을 올렸다. 보더 엔젤스와 푸에블로 신 프론테라스 같은 인권단체도 포함됐다.

당국이 이들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여권에 별도의 표시를 하고, 개별 서류를 작성해 보관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문서에 적힌 명단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검열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NBC는 추정했다.

처음 의혹을 제기한 정부 관계자는 "국토안보부는 범죄수사기관이 지 정보기관이 아니다"라면서 "국토안보부 권력의 남용"이라고 비판

했다. 하지만 CBP 대변인은 국경 폭력 사태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문서를 작성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N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샌디에이고에서 국경장벽을 무너뜨린 사건이나 국경 요원에 대한 폭력 사태가 발생한 후 법적 조치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폭력 행위가 사전에 의도된 것인지 판단하고자 명단을 작성하는 건 일상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angela0204@news1.kr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보는 폭스뉴스 간판 프로그램 폭스 앤 프렌즈

민주, 불공정한 폭스뉴스에 경선 토론회 안맡긴다

친 트럼프 폭스뉴스 공정성·중립성 문제 제기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 민주당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나갈 당내 후보자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친(親) 트럼프' 언론으로 분류되는 폭스뉴스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폭스뉴스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6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폭스뉴스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톰 페레즈 DNC 의장은 폭스뉴스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토론회를 주최할 처지가 아니다"며 보이콧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2020년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폭스뉴스는 민주당의 미디어 파트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민주당은 오는 6월에 MSNBC, NBC뉴스, 텔레문도를 통해 1차 토론회를, 7월에 CNN을 통해 2차 토론회를 주최할 계획이다.

미국 내에서 보수 성향 매체로 분류되는 폭스뉴스는 지난 2008년과 2016년 대선 때도 민주당 경선 토론회를 맡지 못했다.

폭스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폭스뉴스를 즐겨보고, 실제로 폭스뉴스 출신 언론인들을 행정부에 영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근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폭스뉴스가 지난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인 스톰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를 덮기 위해 '입막음 돈'을 건넸다는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wonjun44@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인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케시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bamortgageco.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닥터홍 메드스파안웰니스 MeelIn Skin Health and Wellness

보스톤 최초 한인 스킨 앤 바디 클리닉
피부 젊음 가까워졌습니다

- 하이드로 페이스 MD3 시스템
- 보톡스, 디스포트
- 더마 필러(Therma Filler) : 레슬린, 쥬비덤
- 피부노화를 방지하는 PRP(Platelet Rich Plasma)
- BTL Axilis Ultra : 레이저 스킨 & 바디케어
- 뉴트리션 테라피
- 체중조절 및 탈모 복원 시술



예약문의: Meeinskinhealthwellness.com, 617.202.6261, 855.208.2806
 46 Austin street #301, Newton, MA 02460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한국 초미세먼지 농도 OECD 2위...공기질 최악 '안성'

에어비주얼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 중국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한국 등 대기오염 증가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18년 한국의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도가 높은 OECD 100대 도시 중 44개 도시가 한국 내 도시였다. 2017년 43개 도시였던데서 1곳이 더 늘었다.

CNN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AirVisual)의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4일(현지시간) 인용, 보도했다. 총 73개국 3000여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이 보고서는 2018년 전 세계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국가 및 도시 단위로 측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24.0 $\mu\text{g}/\text{m}^3$ 로 칠레(24.9 $\mu\text{g}/\text{m}^3$)에 이어 2위였다.

OECD 도시별 집계에서는 대기질이 가장 나쁜 100개 도시에 국내 44개 도시가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 안성(30.4 $\mu\text{g}/\text{m}^3$)과 강원도 원주(29.6 $\mu\text{g}/\text{m}^3$), 전라북도 전주(29.6 $\mu\text{g}/\text{m}^3$), 경기도 평택(29.5 $\mu\text{g}/\text{m}^3$), 이천(29.4 $\mu\text{g}/\text{m}^3$)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대기오염의 증가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며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이 초미세먼지의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한국·인도네시아·태국 등 이웃 국가는 중국에서 넘어온 대기오염 물질로 공기오염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내년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약 700만명에 이르고 2250억달러의 노동력 손실과 수조 달러의 의료비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경고했다. angela0204@news1.kr



수도권에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관측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미세먼지 상황을 알려주는 앱 화면 뒤로 도심이 뿌옇게 보인다

미세먼지 비상조치 효과 없었다 전 국민 차량2부제 '만지작'

준비 안된 지자체 단속인력·예산 부족 '엇박자' 사회 재난으로 인정시 강화된 조치 실행 추진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전국 각 지역에 5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최악의 대기질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비상조치 실행 상황을 철저히 살피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예산과 현장 인력이 부족해 엇박자가 나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긴급 점검회의에서 각 시·도 단체장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각 시도의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했는데 과연 각 시도의 단체장들이 같은 생각인지 조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를 탓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 인력과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특별법 시행을 밀어붙여 놓고 지자체에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 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하고 있는 곳은 아직 서울 뿐이다.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인천시와 경기도가 올 상반기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있을 뿐, 다른 지자체는 여전히 단속 인력과 CCTV 등 시스템 구축에 난색을 표



제주지역에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5일 오전 제주시 제주국제공항과 제주도심이 희뿌옇게 보이고 있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저감조치시 시행되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해당 차량이 많은 세종시의 경우 운행제한 차량의 청사 진입만 불가능 할뿐 인근 주차장에 여전히 주차가 가능한 탓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유입이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비상저감조치가 사실상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불편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공조가 잘 된다면 비상조치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상저감 조치로도 1일 평균 4~5%의 저감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다 강제력있는 조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도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될 경우 현재 공공 부문만에 해당되는 차량 2부제 등을 민간에도 적용하는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강화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라며 "필요하다면 활동과 차량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rocker@news1.kr

중 항의 못하면 창문 열고 근무하라 미세먼지 청 청원 봇물

1주일간 2600건 쏟아져, 20만명 이상 동의면 답변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약 일주일 동안 기승을 부린 미세먼지가 7일 잠잠해졌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청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제목에 '미세먼지'가 포함된 청원만 해도 2600건이 넘는다.

이중 지난달 26일 올라온 '미세먼지 중국에 대한 항의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9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앞선 청원 답변을 링크한 뒤 "청와대가 직접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9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 미세먼지 30% 줄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중국에 할말은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라며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올라온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 동부해안의 석유코크스(페트코크)Petcoke입니다. 외교적으로 강력한 항의 및 중지 노력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

에도 현재 1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이날(7일) 올라온 "청와대 창문 열고 근무하기 캠페인"에 관한 건'이라는 청원도 눈길을 끈다.

청원인은 "지금 대한민국 중국먼지가 위험수준으로 격상된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국내 차량 2부제 등의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의 무지와 의도적 회피현상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 청원인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 못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인식개선과 정진개조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 건물 내 모든 창문을 열고 근무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 16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flyhighrom@news1.kr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MAR. 8th - MAR. 14th, 2019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GOCHUJANG SPAGHETTI WHY HAVEN'T WE THOUGHT THIS BEFORE?! THE GOCHUJANG PASTA RECIPE IS HERE!

고소한 치즈와 한국식 매콤함이 느끼하지 않게 조화된 고추장 스파게티를 H마트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 [f](#) [p](#) [i](#) Follow us @hmartofficial

NEW RESTAURANT PARTNE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CONTACT me@hmart.com



<p>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26.99</p>	<p>Seedless Orn Mandarin 씨없는 오리 만다린 \$1.79</p>	<p>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0.99</p>	<p>Stem Tomato 스텝 토마토 \$1.29</p>	<p>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 \$1.49</p>
--	--	---	--	--

<p>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p>	<p>Ginger 생강 \$1.49</p>	<p>Onion 양파 \$5.99</p>	<p>Gabo 우엉 \$1.99</p>	<p>JINGA Tofu 진기네 두부 \$0.99</p>
---	---------------------------------	--------------------------------	-------------------------------	---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Beef Heel Meat 사태 \$6.99</p>	<p>Beef Tenderloin (Whole Piece) 소 안심 \$7.99</p>	<p>TONGTONGBAY Dried Anchovy 통통베이 볶음멸치 \$6.99</p>	<p>Frozen Abalone 냉동 전복 \$19.99</p>
<p>Boneless Pork Loin 돈까스용 돼지고기 \$4.99</p>	<p>Sliced Pork CT Butt Steak 소금구이용 돼지 생육산 \$5.99</p>	<p>TONGTONGBAY Squid Ring 통통베이 오징어링 \$4.99</p>	<p>Sliced Red Squid 홍진네 오징어치 \$18.99</p>
<p>Chicken Wing 닭날개 \$2.49</p>	<p>Marinated Chicken Boneless Thigh 양념 닭 사태 \$2.99</p>	<p>Seaweed Salad 해초 무침 \$2.99</p>	<p>Cod Fillet 대구 전갈 \$6.99</p>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미아쌀 \$9.99</p>	<p>I WANT Paper Towel 아이원드 페이퍼 타월 \$10.99</p>	<p>HAIJREUM Yellow Croaker 해오름 황금돔(궁비) \$14.99</p>	<p>KUMANGCHUN Green Tea Seasoned Layer 광천 녹차김 \$9.99</p>
<p>NISHIMOTO SEIKA Premium Medium Grain Rice 니시모토 세하알 \$9.99</p>	<p>KUMANGCHUN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10.99</p>	<p>PULMUONE Vietnamese Pho 풀무원 베트남 수프 \$4.99</p>	<p>HAIJRE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해오름 소고기 양념 \$3.99</p>
<p>HAIJREUM GOMPYO Wheat Flour 해오름 곱표 밀가루 \$5.99</p>	<p>HAIJREU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해오름 인삼계탕 \$9.99</p>	<p>THE HOUSE MANDU Dumpling 그집 만두 양념 \$5.99</p>	<p>NONGSHIM Snack Mix 농심 스낵믹스 \$8.99</p>
<p>ORION Choco Pie 오리온 초코파이 \$2.99</p>	<p>KWANG DUNG Vita 500 Vitamin Drink 광동 비타 500 비타민 음료 \$4.99</p>	<p>LUMIMARC Amber (Blossom) White Pot 루미마크 인삼/꽃샘/대일/백미/하이브리드 냄비 \$19.49-\$51.99</p>	<p>KOTO Rice Cooker 코토 유리뚜껑 밥솥 \$17.99</p>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omissions/typo error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아무리 아니라 우겨도...미세먼지는 중국 탓

환경부, 중국 요인 80% 육박...전문가도 50%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장기간 지속, 국내 기상요인도 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최근 한반도를 공습한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의 주요인은 중국일까. 아니면 국내 내부 요인일까.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주요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이번에는 중국 요인이 더 크다는 게 정부와 연구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 요인이 80%에 육박했다"고 보고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중국 영향이 50%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서울의 1~2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7 $\mu\text{g}/\text{m}^3$, 일 최대 129 $\mu\text{g}/\text{m}^3$ 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 나쁨 일수 또한 23일로 크게 악화됐다. 3월 들어서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6일 연속 지속되는 등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기록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일평균 135 $\mu\text{g}/\text{m}^3$ 를 기록하며 2015년 정부가 공식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발령 일주일 만에 해제되고 7일에서야 미세먼지

보통' 수준을 회복했다.

미세먼지의 내·외부 기여도는 당시 기상과 기류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의 경우 내부 요인이 더 크다고 봤지만 올해 1~3월의 경우 중국 유입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최용석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박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에 대한 국내·외 기여도는 그때 그때 다르다"며 "환경부 발표처럼 이번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전날 청와대 보고에서 "지난 1월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의 원인 분석 결과 중국 요인이 80%에 육박했다"며 중국 요인이 컸음을 시사했다.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도 "위성으로 봐도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중국 영향이 50% 이상, 최대 70%까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 변화를 담은 사진 두 장. 왼쪽은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 5월 사진이고 오른쪽은 지난 1월 16일 모습이다

는 등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 것은 국내 기상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반 센터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오래 지속된 것은 우리나라 요인도 적지 않다"며 "이동성 고기압권 내에서 대기가 정체돼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고, 안개도 끼는 등 기압배치 요인이 컸다"고 분석했다.

최 박사는 "중국이 과거 더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을 때도 기상여건이 좋으면 한반도에 주는 충격이 크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한반

도와 동아시아 주변에 굉장히 큰 고기압이 형성됨에 따라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와 중국에서 밀려온 미세먼지가 더해져 장기간 농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상요인의 경우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내·외 요인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기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정권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는 "2016년부터 서서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오존 농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석탄발전소 조기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바람길을 만들 수 있는 녹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서울의 도시 구조가 현재 고층 아파트만 들어서는데 계속 녹지를 훼손해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

MB '주거지 제한' 점검 법원 14일부터 주 1회 회의

보석조건 점검 회의 참석자는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 등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다가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에 대해 법원이 매주 한 번씩 점검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7일 서울고법은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이 부가된 보석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오는 14일부터 주 1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 대상자는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의 주심판사(송영승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 사무관, 검사,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다. 회의 참석자는 앞으로 상황에 따라 일부 추가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

회의에선 강남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주간동향 보고를 받는다. 또 보석조건 준수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법원의 당부 사항도 전달하기로 했다.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법원은 전날(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논현동 사저로 제한하고, 제대로 준수되는지 경찰에 하루 한 번씩 확인을 받도록 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만 만날 수 있으며,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이용도 불가능하다.

사실상 가택연금인 셈이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기존 구속 영장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기에, 이

조건들을 어긴다면 이 전 대통령은 언제든지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치소로 돌아와야 한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등 보석제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6일 "보석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우리 사회의 비판을 수용해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였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MB 풀려나자 박근혜도? 한국당, 대통령 결단 기대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목소리가 술술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구속중에 있다.

황교안 대표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과 관련, "구속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오래 구속되어 있고 건강도 나쁘다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달 20일 전당대회 경선 당시 TV토론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구금돼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에는 법률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사면 결정이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박 전 대통령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사면 문제는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시기에 대해 '지금 해야 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올바른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한 뒤 "아울러 2년간 장기 구금돼있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재판절차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뤄져 노무현 투신 사건에 대한 사적 보복, 정치 보복 재판이 안 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pjy1@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OUR AGENTS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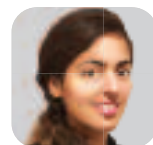
미니 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OUR LISTINGS



● **럭셔리콘도매매**

보스톤다운타운보스톤커먼 근처
2 Beds & 2 Baths 1378 Sq.Ft
Valet 주차, 루프탑, 수영장

Asking **\$1,650,000**



● **네일샵매매**

Price Reduced

보스톤북쪽, 3760 Sq. Ft
18 Chairs & 20 Nail tables
최고급시설

Asking **\$47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 **식당 매매**

Hibachi 테이블 & 스시바
풀 리퀘 라이선스, 2500 스퀘어피트
보스톤 북쪽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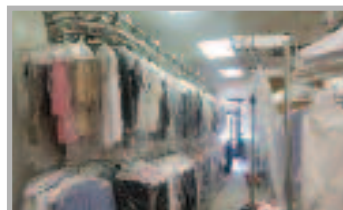
Asking **\$7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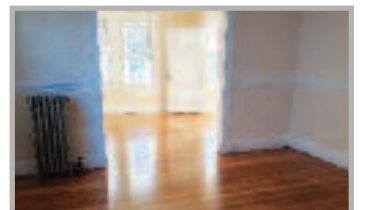
Asking **\$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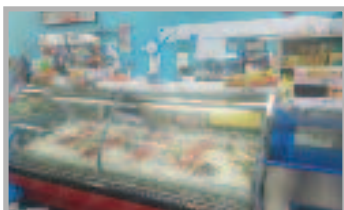
Asking **\$50,000**



● **주거렌트**

에버렛에 위치, 1125 Sq. Ft,
2 Beds & 1 Bath, 새로레노베이션아파트
주차가능, 보스톤에인접, 단기렌트가능

Asking **\$2000/월**



● **Fish 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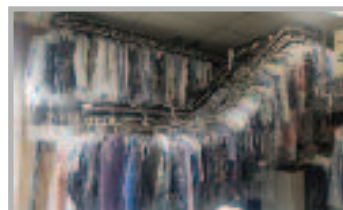
Asking **\$50,000**



●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특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우리가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 We are History Makers!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지역의 유산·문화·관광을 소개합니다.



- 전국 사찰을 소개합니다**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대한민국관광진흥청
Korea Tourism Development Authority

대한민국관광진흥청
Korea Tourism Development Authority

대한민국관광진흥청
Korea Tourism Development Authority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미소랑치과'

백해무익한 흡연, 치아와 잇몸건강 위협한다

흡연이 심혈관계질환이나 각종 암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흡연이 치아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흡연이 단지 치아를 누렇게 변색시키는 심미적 영향만 끼친다고 생각한다면, '건강의 적' 이라고 불리는 흡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네트워크 미소랑치과의 도움을 받아 흡연이 치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휴람 네트워크 미소랑치과 강남점의 김성욱 원장은 “흡연은 입 속 온도를 높이고 침 분비를 억제해 충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니코틴과 타르의 끈끈한 점성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치석보다 더 쉽고, 두껍게 쌓인다” 며 “이렇게 쌓인 치석을 오래 방치하면 잇몸을 파고 들어가 잇몸병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치아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의 날' 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흡연자의 잇몸병 유병률이 84%로 비흡연자의 69%보다 15% 높았다. 잇몸의 염증이 잇몸 뼈까지 진행된 치주염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12.7%로 비흡연자보다 무려 2배나 더 많았다.

흡연자의 잇몸 건강이 비흡연자보다 나쁜 것은 흡연으로 인해 쌓인 치석 때문이기도 하지만, 담배에 포함된 여러 유해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리고, 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더욱이 또한 잇몸이 상한 상태에서 니코틴이나 타르 등의 유독물질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면 구강질환의 치료기간이 2배나 늘어난다.

따라서 김 원장은 장기적인 치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금연을 권하고 있다. 특히, 흡연은 골 융합을 잘 안되게 만들어 임플란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흡연자의 임플란트 실패율은 비흡연자의 경우보다 10배나 높다고 한다. 그 외 치아를 빼거나 외과적 수술을 하거나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에도 흡연자는 그 효과가 떨어진다.

김 원장은 “임플란트를 재수술 없이 오래도록 쓰고 싶다면 아예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 며 “그러나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수술 전 2주, 그리고 수술 후 6주간은 금연하는 것이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된다” 고 조언했다.

충치가 생기거나, 치주염으로 인해 잇몸과 잇몸 뼈가 많이 손상되거나, 아예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외과적 수술을 통해 예전과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본연의 치아를 건강하게 평생도록 쓰는 것이다.

그런데 금연하는 것만으로도 충치와 치주염의 발병률을 낮출 수 있고, 거기에 담뱃값과 병원진료비도 아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그래도 금연하기가 어렵다면 구강관리에 더

욱 더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다. 담배를 피운 후에는 양치질을 해서 입 안에 쌓인 담배의 유독 물질을 닦아내도록 한다. 특히 담배 연기에 많이 노출된 치아 안쪽과 입 천정, 혀 안쪽을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 좋다.

만약 양치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로 입안을 헹구어주도록 한다. 당분은 담배의 독소 물질과 결합해 치아에 달라붙어 치주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에 뱀새를 제거하겠다고 껌을 씹거나 사탕을 먹는 행위는 피하는 게 좋다. 또한 비흡연자보다 스케일링이나 정기검진을 더 자주 받아 충치와 치주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흡연이 치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49-1766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은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우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Jay Lee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에서 편리하고 멋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

ASKING \$899k - 1199k









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

ASKING \$600,000-\$800,000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p>보스턴 남쪽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99,000</p>	 <p>단독 건물 매매. 세탁소 포함 오너 파이낸싱 가능 보스턴 남쪽</p> <p>ASKING \$480,000</p>	 <p>보스턴 남쪽, 세탁소 매매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160,000</p>
 <p>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unlimited potential</p> <p>ASKING \$170,000</p>	 <p>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p> <p>ASKING \$375,000</p>	 <p>NH 대형 몰 안에 위치 8 Manicure, 9 pedicure 성업 중인 Nail salon</p> <p>ASKING \$150,000</p>




WE ARE RECRUITING NEW AGENT NOW HIRING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애나 정
617.780.1675



오성빈
978.505.3736

SOLD

1. 퀴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ASKING \$130,000</p>	 <p>보스턴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170,000</p>	 <p>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p> <p>ASKING \$200,000</p>
--	--	--

청, 개각 막판까지 고심...외교 이어 통일장관도 유임 가능성

이르면 7일 또는 8일 단행 유력

(서울=뉴스1) 조소영, 서재준 기자 = 청와대가 막판까지 개각 명단을 고심 중인 분위기다. 당초 이르면 7일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비롯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이라 말이나 온다.

이에 따라 개각 시일도 하루 미뤄진 8일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일 뉴스1과 만나 "대통령의 내주 아세안 3국 국빈방문에 앞서 개각이 단행되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일자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주 후반쯤으로 (개각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날(5일)에는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렸지만 개각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자리에 참석했던 고위관계자는 "개각은 다 정해져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7일 개각이 유력히 점쳐졌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며 개각 최종명단의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장 교체가 확실시됐던 부처로는 해당 부처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진 행정안전부(김부겸), 해양수산부(김영춘), 국토교통부(김현미),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중소벤처기업부(홍종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유영민)를 비롯해 통일부(조명균)까지 꼽힌 바 있다.

특히 그중 후임 문체부 장관으로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기부 장관으로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 통일부 장관으로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만 항간에선 세 사람 모두 이번 개각명단에 이름을 올리기가 어려워졌다는 말도 나온다.

문체부 장관의 경우, 우 의원과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발탁을 놓고 최종 저울질을 하고 있다 한다. 우 의원이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식에 문체부는 우 의원과 박전 차관 모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장관도 4선 중진의원인 박 의원이 조선 비례의원 출신인 홍 장관 자리를 물려받는 데 있어 '급이 맞느냐'는 말이 있다. 통일부 장관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라 북한과의 '연속성 있는 협상'을 위해 조 장관 유임설이 흘러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유력한 한편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의 하마평이 돈다.



문재인 대통령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는 진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섭 서울대 교수, 정재근 전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거론된다. 특히 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재인 정부에서도 입각한다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치권 안팎에서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4선의 변재일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여러 차례 올랐으나 일각에선 변 의원이 검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양수 해수부 차관,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유예종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문성혁 세계해사대학교 교수 등이 거론된다.

cho11757@news1.kr

본인 실명 · 얼굴 처음 공개 윤지오 누구? 고 장자연 동료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고(故) 장자연 사망과 관련해 증언했던 배우 윤지오가 사건 이후 방송에서 최초로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지오는 5일 오전 방송된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여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사건 발생 10년 만에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김여준과 이야기를 나눴다.

장자연 사망 당시 같은 소속사에 있던 동료이자 신인 배우였던 윤지오는 '김여준의 뉴스공장' 출연 이전에도 JTBC '뉴스룸' 및 MBC 'PD수첩' 등 몇 차례 방송에 나와 장자연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방송에서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윤지오가 사건 이후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이날 '김여준의 뉴스공장'이 처음이었다.

윤지오는 그간 KBS 2TV '꽃보다 남자'(2009), MBC '선덕여왕'(2009), SBS funE '초 건 방'(2009), KBS 2TV '드라마 스페셜-사백년의 꿈'(2011)과 영화 '애자'(2009), '최초리'(2011), '너는 펫'(2011) 등에 출연했다. 연극 '뉴보잉보잉'(2012), '셜록'(2012) 등에도 나섰다. 또 윤지오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 석사 과정을 거친 이력이 있다.

한편 윤지오는 이날 '김여준의 뉴



장자연 사건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가 처음으로 실명 인터뷰를 했다

스공장'에서 실명과 얼굴을 밝히고 인터뷰에 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오히려 가해자들이 너무 떳떳하게 사는 걸 보면서 좀 억울하다는 심정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 국내에서 거주를 했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캐나다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런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케이스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게 됐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이름과 얼굴이 다 공개가 된다. 또 그런 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피해자가 숨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존중을 받는 것을 보면서 어찌 보면 한국도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또한 윤지오는 자신이 캐스팅이 안 됐던 당시에 대해 회상하며 "그

당시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어서 제외된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고 몇 년 후에는 캐스팅이 안 되는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제가 체감을 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또 감독님이라든지...직접적으로 '그 사건에 너가 증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캐스팅이 불가하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들으면서 그 후에 몇 년 후에 깨닫게 됐다"고 털어놨다.

한편 지난 2009년 3월 7일 사망한 장자연은 이를 뒤 10주기를 맞는다. 장자연은 당시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 받았다는 내용의 친필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져 안타까움과 자아냈다. 이후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aluemchang@news1.kr

경찰, 버닝썬 입막음용 자금 거래 포착...탈세정황 장부도 확보

클럽 MD 통한 자금세탁 의혹 1년치 장부 확보, 입막음용 자금은 배달사고 확인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찰이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 클럽 내 마약 투약과 유통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가 '뇌물 전달책'으로 알려진 이모씨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대표가 노모씨를 통해 이씨에게 8000만원을 전달하려 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 돈은 이 대표가 경찰 유착 정황을 알고 있는 이씨를 회유하기 위해 전달하려 했던 돈으로 파악됐다.

해당 돈은 이씨를 해외로 피시키기 위해 이씨에 전달되려 했으나 노씨가 배달사고를 내면서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돈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전달되려 한 것인지 파악하는 한편 이 대표와 노씨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은 클럽 매출을 횡령하거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편법



서울 강남구 버닝썬의 모습

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이날(7일)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버닝썬 전 재무실장이 쓴 1년치 회계장부를 확보했다"며 "횡령 등 추가 혐의 점이 발견되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금 매출의 축소신고 등으로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클럽 MD(머천다이어) 통장으로 술값을 송금받아 다시 버닝썬으로 보내는 등 자금을 세탁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 또 전직 사내이사 아이돌 빅뱅 소속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ace@news1.kr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건국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안전연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941-9900
전화신청 (Verizon)	617-555-1515
전화공정신고 (Verizon)	617-343-4475
택시	800-222-4357
AAA	617-741-5533
FBI	800-392-6100
MBTA	800-572-9300
NSTAR가스	800-592-2000
NSTAR 전기	800-746-4726
RCN케이블TV/전화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나)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회	978-902-8305
NE교역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력연합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대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대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한미)	617-780-7205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자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617-792-8780
그리핀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론교회	617-792-8780
그리핀드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핀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그리핀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617-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동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날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0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781-642-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타임즈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5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 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웨스트프린터 교회	97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도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정 브랜드스터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프사이드 청문	617-999-9616
아일랜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南)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터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파티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16-7374
안구정통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티케이 헤어디자인	508-786-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 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 그레이스 샵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어/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팩트(이재원)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89-8670 x6080

한미아해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빙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건스태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www.stcavellychurch.org)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예비신자 교리반
 9월 26일(수) 8pm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office_kccb@igmail.com / www.stcavell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뒤임목사 유 경 열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중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Choosing a quality, affordable edu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ever. Eastern Nazarene College is nationally recognized and among the top colleges and universities locally, regionally and nationally.



Serving the Quincy community since 1919



Associate's | Bachelor's | Master's
Traditional Undergraduate
Adult and Graduate Studies

Our honors programs have over 90% acceptance rate into medical and law schools.

#1
Money Magazine recognized ENC as the top private college in New England and #24 in the nation for affordability.



EASTERN
NAZARENE COLLEGE

23 East Elm Avenue
Quincy, MA 02170-2999

617-745-3000 • www.enc.edu



ENC is expanding higher education pathways to Asian and immigrant students in partnership with Quincy Asian Resources, Inc. To learn more visit www.qarima.org/enc or call 857-334-9311.

류준열x유지태x조우진, '돈' 보다 짜릿한 연기 앙상블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류준열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움직이는 여의도 증권가에 입성한 신입 주시 브로커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실감나게 그려냈다. 돈의 유희와 성공의 맛에 취해가는 아슬아슬한 브로커의 모습부터 유지태 조우진과의 짜릿한 연기 앙상블까지, 류준열의 활약이 돋보였다.

먼저 류준열은 조일현 역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밝혔다. 그는 "저는 일단 시나리오 속 인물에 많이 공감했고 공감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 대본 자체를 많이 봤지만 계속 돈이란 무엇인가 고민했다. 개인적으로 현찰을 갖고 다니는 편이 아닌데 현찰을 뽑아서 책상에 올려놓고 가만히 봤던 것 같다"고 연기 과정에서 고민했던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류준열은 "'돈'이 도대체 뭐가 싶었다. 돈이 부족했다가 넘쳤다가 아쉬웠다가 행복했다가 불안했다가 여러가지 감정들이 들면서 이걸 표현해야겠다 싶었다"며 "어느 순간에 오게 되니까 돈이란 건 어렵고 다같은 생각, 다른 생각으로 비치는 무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걸 표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영화는 제 인생에 있어서 돈에 대해 여러가지 깨우침을 준 좋은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류준열은 유지태 조우진 등과의 연기 호흡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선배님들이나 감독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감싸주셨다. 저를 돈보이게 만들어주신 선배님들께 많은 빛을 졌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박누리 감독은 그런 류준열에 대해 "조일현은 인물은 평범하지만 변화는 과정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해야 하는데 그래서 특별함이 있어야 했다. 류준열은 전작을 보면서 평범함과 특별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해 캐스팅했다"고 말했다.

유지태는 앞서 개봉한 '사바하'에 이어 '돈'에서도 강렬한 악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작품을 선택할 때 정통범으로 시나리오에 입각해 그 작품의 결을 따라가려 노력한다. 영화는 특히 분위기나 뉘앙스가 중요한데, 계속 배우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이 좋게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

은 연기를 하려고 노력하려 한다"고 고백했다.

유지태는 악역 번호표를 절제하는 감정으로 표현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는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절제하려고 했다. 연기를 할 때는 고급스럽게 표현하려 노력한다"면서 "배우와 감독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인 것 같은데 감독이 그리고 싶은 메시지를 잘 그려낼 수 있게 내 욕심을 줄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누리 감독은 "눈빛만으로 아우라가 있어야 해서 유지태를 떠올렸다"고 캐스팅 이유를 전했다.

조우진도 '국가부도의 날'에 이어 '돈'에서도 금융업계 관련 인물로 등장, 영화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그는 "'국가부도의 날'과 비슷한 듯 다른 캐릭터인 것 같다. '국가부도의 날'에선 정치인이고 '돈' 한지철은 성실한 회사원, 혹은 직장인인데 차별성을 생각하고 접근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사냥개가 아니라 금융범죄가 지능화되고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집요해지고 집착하게 되는 인물이었다. 본인의 정의감을 끝까지



관찰하려는 인물로, '국가부도의 날'에서는 감정을 숨겨두었다면 이번 '돈'은 감정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다. 한편 '돈'은 오는 20일 개봉한다. aluemchang@news1.kr

3월 10일 - 3월 16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좋은 찬스</p> <p>●운수: 변화하기에 좋은 때가 왔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이사나 이전을 할 일이 있으면 이 시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금전: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좋은 찬스가 옵니다. 점점 더 나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기다리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보게 되겠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2,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p>소띠 귀인의 도움이 따르고</p> <p>●운수: 거센 바람이 지나간 후에 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힘든 일이 다 지나가고 더욱 명쾌해질 것입니다. ●금전: 귀인의 도움이 따르게 됩니다. 처음에 말을 꺼내기가 어렵게 솔직하게 말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정: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두 사람 사이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3, 16일 길일, 11, 14일 주의.</p>	<p>범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p> <p>●운수: 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가장 소중한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훗날에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금전: 당장 어떤 이득을 얻는 것보다 신뢰를 얻는 것이 더 큰 소득이 되어줄 것입니다. ●애정: 한번만 더 용기를 내어보세요. 혹여나 하고 미리 걱정하면서 자꾸 뒷걸음치면 영영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0, 14일 길일, 12, 15일 주의.</p>
<p>토끼띠 웬지 모를 희망이</p> <p>●운수: 웬지 모를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해지고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금전: 새로운 거래처가 연결될 것입니다.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제의도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감동하는가 하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크게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1, 15일 길일, 13, 16일 주의.</p>	<p>용띠 원칙을 지켜야</p> <p>●운수: 내가 하는 조언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만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해야겠습니다. ●금전: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니 지출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합니다. 특히 현실에 걸맞은 생활계획을 세우고 원칙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애정: 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긍정적인 시각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고해 줘야 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2, 16일 길일, 11, 14일 주의.</p>	<p>뱀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p> <p>●운수: 개가 콩yet 사먹고 버드나무에 올라간다는 속담처럼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것처럼 되니 다시 생각하도록 하세요. ●금전: 판단력이 흐려지니 제대로 상황을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 너무 쉽게 속마음을 보이지 마세요. 잘못 말하면 고민만 더 보태는 격이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0, 13일 길일, 14, 15일 주의.</p>
<p>말띠 희망의 끈을</p> <p>●운수: 좋은 상황이 내뻐지는 것이 한 순간이듯이 힘든 상황이 좋게 바뀌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금전: 주중보다는 주말에 일이 더 잘 풀리고 수입도 나아질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 못지않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니 지출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애정: 현재 처한 모든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0, 14일 길일, 13, 16일 주의.</p>	<p>양띠 삶이 주는 무게로</p> <p>●운수: 삶이 주는 무게로 두 어깨가 처지더라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는 생각으로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금전: 손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니 특히 잠깐만 쓰고 값싼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정에 약해져서 금전거래를 하면 후회만 남게 됩니다. ●애정: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길게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격한 신경전을 벌이게 될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0, 15일 길일, 11, 14일 주의.</p>	<p>원숭이띠 함박 미소를 짓게</p> <p>●운수: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스스로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와서 함박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금전: 떨어졌던 매상이 다시 오르게 됩니다. 나갔던 돈이나 받아야 할 돈을 받게 되니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서로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3, 16일 길일, 11, 15일 주의.</p>
<p>닭띠 일의 순서를 정해서</p> <p>●운수: 가만히 앉아서 운운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급한 것인지 일의 순서를 정해서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처리하세요. ●금전: 노력 없이 결과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추진해야 합니다. ●애정: 미리 앞서서 괜히 사서 걱정할 격이 되기 쉽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별 탈 없이 조용히 잘 지나갈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2, 14일 길일, 10, 16일 주의.</p>	<p>개띠 철저한 확인이 필요</p> <p>●운수: 힘들 때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만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극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금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정황만으로 판단하다가 실수하게 됩니다. ●애정: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상대는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것 같은 기분 들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0, 12일 길일, 11, 16일 주의.</p>	<p>돼지띠 눈치껏 행동해야</p> <p>●운수: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꼼꼼히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도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전: 알게 모르게 돈이 세어나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싼 것이라도 당장 꼭 써야 할 것이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면 구입하지 마세요. ●애정: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주 사소한 이유로 멀어질 수 있으니 눈치껏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1, 16일 길일, 12, 15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스톤햄, 방 렌트 단기/장기.
주방 사용 가능, 화장실 따로 사용.
T. 978-609-8749

렉싱턴센터에 위치한 한,일식당 다빈에서
웨이터, 웨이트리스 구합니다.
☎. 781-860-0171

ITZY, '달라달라' MV 조회수 7000만뷰 돌파...식지않는 인기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ITZY(있지)의 데뷔곡 '달라달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7000만뷰를 돌파했다.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선보인 5인조 걸그룹 ITZY는 2월 12일 오후 6시 첫 디지털 싱글 'IT'z Different(있지 디퍼런트)'와 타이틀곡 '달라달라'를 발표하고 정식 데뷔했다.

음원 발매 하루 전인 지난달 11일 0시에 선공개된 '달라달라' MV는 6일 오전 기준 유튜브 조회수 7000만뷰를 달성하며 식을 줄 모르는 인기 열풍을 과시하고 있다.

또 ITZY의 데뷔곡 '달라달라'는 발매 4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6일 오후 기준 각종 음원 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상위권에 올라 2019년 최고 신인다운 막강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음악방송 1위도 석권했다. 지난달 21일 Mnet 음악 방송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 23일 MBC '쇼! 음악중심', 24일 과이달 3일 SBS '인기가요' 1위에 오르며 데뷔와 함께 가요 순위 프로그램 4관왕을 차지해 이목을 모았다. 특히 ITZY는 K팝 걸그룹 중 지상파 음악방송 최단 기간 1위 기록을 세우며 가요계 새 역사를 썼다.

ITZY는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신인 답지 않은 무대로 '무



대 장인', '무대에서 더 빛나는 팀'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이 밖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밝고 친근한 무대 밖 매력도 선사하며 국내외 팬들과 소통 중이다.

또 예지, 리아, 류진, 채령, 유나 다섯 멤버들은 데뷔 과정을 전하는 각종 메이킹 영상을 비롯 안무 연습 영상, 컬러풀한 차량들을 배경으로 다이내믹한 춤선을 자랑하는 퍼

포먼스 영상까지 선보이는 등 다양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이 중 '달라달라' 안무 영상은 지난 5일 오전 기준 유튜브 1000만뷰를 돌파해 'JYP 드림팀 ITZY'의 퍼포먼스에 대한 팬들의 관심을 증명했다.

hnh1@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전현무 · 한혜진, 결국 '동료'로 남았다..네티즌 '아쉬움'

(서울=뉴스1스타) 이지현 기자= 방송인 전현무, 모델 한혜진이 결국 동료로 남았다.

전현무, 한혜진은 6일 각자의 소속사 SM C&C, 에스팀을 통해 결별을 알렸다. 약 1년간 교제했던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소식이 이목을 집중시켰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로 인연을 맺은 전현무와 한혜진은 공개 열애 이후에도 해당 방송에서 크게 활약했다. 하지만 연인에서 동료가 된 상황으로

인해 '나 혼자 산다' 휴식기를 갖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두 사람의 결별 그리고 '나 혼자 산다' 휴식기에도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

한편 '나 혼자 산다' 측은 전현무, 한혜진이 오는 8일 방송 출연을 끝으로 휴식기를 갖는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또한 "당분간 두 회원의 빈자리를 공식으로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lll@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네가 아담이라고?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의아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뭐라고? 네 이름이 아담이라고?” 그랬다. 그가 자신을 아담이라고 소개했을 때, 필자는 이 친구가 장난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필자에게는 먼 옛날 에덴동산에 살던 그 아담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흙으로 자신의 형상을 빚어 숨을 불어넣어 아담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가. 불경스럽게도 아담이란 경건한 이름을 사칭하다니?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아담은 터키에서 왔다. 터키어를 포함한 알타이어를 연구하면서 필자는 아담이 ‘사람’을 뜻하는 보통명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특정한 인간 아담 즉 고유명사 아담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명사 아담 즉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노아의 방주가 있던 아라라트 산도 터키에 있으니까 창세기의 배경이 터키일 수도 있지 않은가? 에덴동산이 터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증거도 없지 않은가?

이런 궁금증들을 신학자들의 관심사로 남겨두려다가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필자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adam은 히브리어로도 보통명사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히브리어로 흙은 adamah이다.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어원적으로도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다. 우리 신화에서는 최초의 인간 단군이 인쇄심 많은 꿈에게서 왔으니까 흙과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틴어로 man은 homo이고 human은 humanus이며 humus는 ‘흙, 땅’을 의미한다. 세 단어가 모두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다. 적어도 유럽과 중동에 사는 사람들의 조상은 인간이 흙에서 왔다는 전제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틴어 humanus는 형용사이므로 ‘사람의, 인간의’란 뜻이다. 오늘날 영어에서도 humane(인간적인)이란 단어로 남아있다. posthumous는 흙으로(humous) 돌아간 후(post) 즉 작가가 죽은 이후에 출판되는 유고집을 말한다. 미국영어에서는 /h/가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human을 /ju: mən/(유먼)이라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다. 프랑스어에서는 글자 ‘h’가 아예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뜻하는 homme는 /ɔm/(움므)로 발음한다.

학창 시절 지겹도록 들었던 Homo sapiens(지혜로운 인간)에 나오는 homo도 ‘사람’이다. 사실 인간은 지혜롭기 이전에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Homo ludens 즉 ‘놀이의 인간’이 먼저이다. 아무튼 다시 ‘흙’을 의미하는 humanus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 어근

은 hom-, hon-, om-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exhume(발굴하다)는 흙(hume) 밖으로(ex-) 꺼낸다는 뜻이고, homicide(살인)는 사람(hom-)을 죽인다(-cide)에서 왔으며, hominid(원시인류) 등이 있다. homage(경의, 존경)란 단어는 원래 프랑스어에서 봉건영주에 대한 존경과 충성이란 뜻에서 유래해서 지금은 그 의미가 넓어졌다. 나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언제나 조지 오웰의 <Homage to Catalonia>란 작품이 떠오른다.

라틴어 humilis에서 온 humble은 말 그대로 땅바닥으로 낮아진다는 의미에서 ‘겸손한’이란 뜻이 되었고, 그 동사형이 humiliate(굴욕감을 느끼게 하다), 명사형이 humility(겸손, 비하)이다. 땅바닥으로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창피를 주는 것이다. 이 밖에 humus(부식, 부식토)는 흙이 부식되는 것을 말하고, inhume은 흙속에 넣는 것이니까 ‘매장하다’이다. 라틴어 inter와 동의어이다. nemo는 부정접두사 ne-와 사람을 뜻하는 hemo가 결합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뜻이다.

camomile(카모마일)은 그리스어 chamaimelon에서 왔다. khamai가 ‘땅’이고 melon이 ‘사과’이므로 ‘땅의 사과’란 뜻이다. 뜻은 아무 관련이 없지만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단어가 chameleon(카멜레온)이다. 역시 khamai(땅)과 lion(사자)의 합성어이다.



마음대로 골라본다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55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경 미 최대 안마의자 전시장 하이트론스 **축**

대한민국 안마의자 위 기업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판매!

사랑하는 부모님께는,
용돈보다
안마의자!

전신마사지는 기본,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까지
뇌피로 시대의 새로운 해법,
바디프렌드 브레인 마사지



바디프렌드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브레인 마사지란?**

특허받은 바디프렌드만의 기술 뇌파 유도 사운드 바이노럴 비트
[뇌파 유도 사운드 (바이노럴 비트)와 스페셜 마사지를 통해 뇌의 깊은 휴식을 유도하고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두뇌 관리 솔루션입니다.]

▲ 특허 제 10-1853928호 : 브레인 마사지를 수행하는 안마의자 ▲ 특허 제 10-1853927호 : 브레인 마사지를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안마의자



**브레인 마사지 임상 입증
SCI급 논문 게재!**

[안마의자를 이용한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브레인 마사지)가 정신적인 피로와 집중력, 기억력 등에 미치는 영향]
의학 분야의 국제 SCI급 저널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에 게재되어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브레인 마사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 입증**

뇌피로 회복속도 8.8 배증가	집중력 지속력 2 배증가	기억력 2.4 배증가
----------------------------	-------------------------	-----------------------



렉스엘 브레인



파라오 5 브레인



파라오 브레인



펜탐블랙 브레인



펜탐 브레인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NJ Main Branch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

Bethel Health - NY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

Bethel Health - NJ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

PA Branch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

MD Branch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

Mattress- NJ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nkin Donuts)

신영의 **세상 스케치**

685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삼십 년을 살고 있으니...

참 오랫동안 한 여자랑 한 남자가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다. 요즘처럼 사랑이나 물건이나 빨리 고르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싫증을 내는 현대를 사는 요즘 시대에서 말이다. 연애를 2년 결혼을 30년도 합 32년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래도 살면서 작은 다툼은 하며 살았지만, 큰 싫증 내지 않고 세 아이를 키우고 살았으니 감사하다는 생각이 절로 난다. 딸아이가 올해 만 스물아홉이 되었고, 큰녀석이 스물여덟 그리고 막내 녀석이 칠월이면 스물일곱을 앞두고 있으니 세 아이를 보면서 빠르게 지난 시간과 흐른 세월을 가늠해보는 것이다

1989년 3월 6일이 결혼식 날이었다. 참으로 손끝이 매섭도록 추운 날이었다. 그런데 결혼 30주년을 맞은 오늘도 그날과 비슷하게 쌀쌀한 날씨가 잠시 30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오늘은 남편이 쉬는 날이라 밖에서 불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내게 전화를 넣었다. 점심시간이 되어가니 동네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함께하겠느냐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 점심 생각이 별로 없다고 답을 해주고 전화를 끊었다. 아뵐까!!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 것을 그만 깜빡 잊고 말았지 뭐냐. 아니되겠다 싶어 얼른 남편에게 전화를 넣었다. 그 레스토랑으로 나도가겠노라고.

사실, 우리 집 아이들과는 돌아오는 일요일 저녁에 함께 만나자는 약속을 해놓았었다. 큰녀석은 플로리다에서 있으니 딸아리와 막내 녀석과 그리고 여자 친구와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친하게 지내는 친구 부부와 함께 저녁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대한 의미를 별로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어제저녁에는 교회에서 선교부 모임이 있었는데 연세 드신 권사님께서 맛난 콩떡을 해오셨다. 그 콩떡을 싸주셔서 집에 가져왔다가 오늘 아침에 맛있게 먹어 점심 생각이 별로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래도 얼른 마음을 바꾸고 남편과 함께 점심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점심 생각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랑 같이 마주 앉아 먹는 내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맛나게 먹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얼마 있으니 세 아이에게서 엄마가 좋아하는 '하얀 프리지아' 꽃박스가 꽃

집에서 들리브리 되어온 것이다. 꽃을 꺼내 꽃병에 꽂는 내내 지금까지 잘 자라준 세 아이와 곁에서 묵묵히 후원자가 되어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언제나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올랐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감사를 더욱 느끼는 날이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에서의 특별함이란 이렇듯 평범함 속에서의 나눔일 것이다. 서로 남남이 만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의 일원이 되고, 서로의 모난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멍도 들고 상처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둥글둥글해졌던 것이 아닐까. 그래도 가만히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면 그 어떤 일에서든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지 않았나 싶다. 이렇듯 30년 정도 살을 맞대고 살고 한 지붕 아래에서 마주하면서 하나둘 늘어나는 흰 머리카락을 보면서 연민도 생기고 여기저기 쑤신다는 얘기에 안쓰럽고 측은지심이 가득 차오른다.

부부라는 관계는 그런가 싶다. 서로 믿어주는 마음의 '신뢰'가 제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남편은 아내를 신뢰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신뢰해야 그 가정의 한곳으로 모

아지고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다. 물론, 서로 존중해야 하고 존경할 수 있다면 더없이 복 받은 가정일 것이다.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과 신뢰가 밑바탕이 된다면 살면서 버거운 일이 생기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이 생기더라도 함께 의지하며 견딜 힘이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인 까닭이다. 서로를 믿는 믿음의 '신뢰' 말이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고 유산이지 않을까 싶다.

여행을 좋아하는 내게도 일주일 정도 남편과 떨어져 있으면 그런대로 괜찮은데 열흘이 되기 전에 보고 싶어지는 것이다. 어느 부부들도 그렇겠지만, 한국 방문을 하고 한참 동안 떨어졌다 만나면 '측은지심'보다는 고마움과 함께 새로운 느낌의 반가움이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결혼 30주년을 맞은 것처럼 앞으로의 30년도 서로 보듬어 주고 든든한 버팀목과 그들이 되어 살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서로에게 긴 인생 여정의 편안한 친구로 삶의 동지로 살고 싶다. 조금은 서로 배려하고 기다릴 줄 아는 소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으로 마주하길 바란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한담객설閑談客說: 계륙鷄肋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면 학문이란 게 원래 이런 겁니까? ... 학문이 다 뭐다 해 봐야, 또 학자니 지식인이니 해 봐야 세상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었다. (동아일보, 2017년 7월)

누구한테 들었다. 중국사람들은 세상에 못먹는 건 없단다. 단 책상다리만은 먹지 않는다. 하긴 마당에 놓아 키우는 닭은 작은 돌맹이도 쪼아 먹어 삼킨다. 돌맹이가 위속에서 음식물과 섞여 갈아주는 역할 이라던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위속속에 돌맹이 되는 거다. 중국사람들은 당연히 닭갈비도 먹을 것이다. 하긴 닭갈비 뿐만아니다. 닭발까지 먹는다. 한국포장마차에서 판다. 씹는 맛만 있을 것이다. 먹기엔 닭발보다 닭갈비가 나을지 모르겠다. 책상은 공부할 적에 쓴다.

계륙鷄肋은 닭갈비이다. 닭갈비는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씹히는게 별로 없다. 학문이란 게 원래 닭갈비인 모양이다. 나라를 경영하는데 학문의 도움이 크지 않아 무시하자니 찝찝하다. 그렇다고 애용하자니 그것 또한 마뜩치

않다는 거다. 지난 가을 장張모라는 전前청와대 참모가 계륙鷄肋이었다. 그는 원래 경제학 교수였으니 글줄을 읽었을 게다. 그런 그가 영양가 없는 말을 자주 터트렸던 모양이다. '내가 강남 살아봐서 이는데, 강남에 살지 마시라.' 결국 그는 참모직을 떠났다.

공자의 말씀을 잇는다. 有朋自遠方來(유봉지원방래)면 不亦樂乎(불역락호)야.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 이 또한 큰 기쁨이 아니던가? 한국 대통령은 친구인 전직참모가 기뻐할 게다. 결국 참모를 내쳤는데, 친구로서 그 사람 남아 있을 것인가? 한편, 그 사람 재산은 심수억 늘어났다고 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2-22-2019)

학문이란 원래 그런가 한다. 총론은 맞는 듯 싶는데, 각론은 때때로 난감하다. 사회과학이라 그런가? 학문이 졸지에 계륙鷄肋이고 닭갈비가 되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12:12)

그게 한국 3공共이나 5공共적 이었을 거다. 경제분야 고위직엔 대학교수들이 대거 발탁되었다. 그만큼 인재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터. 그땐 그게 통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논어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다. 양주동 선생의 글에도 나온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배우고 익힌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있겠는가. 공자는 공부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공부하는 사람을 학자라 한다.

한국 야당에 당수黨首가 된 사람 글이다. 그 이도 대학교수였고, 경제학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두꺼운 논문집에 손을 얹고는 말했다. "정치 발전에 관한 학술회의 자료라는데..." 그러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하는 말. "... 뭐가 있을까 해서 읽었는데 질문도 답도 없어요 두껍긴 이렇게 두꺼운데..." 이어 던지는 질문. "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치과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템 [99만원 ~]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 5 미백 [30만원 ~]
- 6 전체틀니 [180만원 ~]
- 7 크라운 [40만원 ~]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 (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샛강역) / 옥스치과(강남역)
클라인치과 (압구정역) / SKY치과(역삼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17) 은퇴 투자 준비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과 건강에 관한 관심으로 60살 때쯤 은퇴한다고 해도 은퇴 생활이 30년이란 긴 세월이 될 확률이 높다. 여기에 여성들의 기대수명은 남자보다 훨씬 더 길다. 사회보장연금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은퇴자는 이 돈으로 은퇴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결국 긴 세월의 생활비는 그동안 내가 모은 돈으로 충당해야만 한다.

노후자금에 당장 해야 할 일이 아니기에 자꾸 미룬다. 우리 한인들은 아이들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부부의 노후대책보다는 아이들의 학자금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의 공부는 용자를 받아서라도 공부할 수 있지만, 은퇴 생활은 돈을 빌려서 생활할 수 없다. 부모의 부족한 은퇴자금은 아이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직장의 은퇴플랜에서 돈을 빌려(Loan)

집 사는데 혹은 아이들 학자금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직장인이 생각할 때 내가 투자한 돈을 꾸어서 자신에게 갚아 나가므로 재정적인 손실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직장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용자받은 만큼 투자되어있지 않기에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투자 수익률과 복리효과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자를 갚을 때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갚는다. 은퇴 후 401(k)등에서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또 내야 한다. 세금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내는 것이다.

주식시장이 두려워서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10년 동안 주식시장이 상승했기에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2018년 주식시장 하락으로 투자자 마음이 더욱 불안하다. 사실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반복된 이야기다.

2018년을 포함하여 지난 10년간 주식시장(S&P 500, 미국 500대 기업)의 연평균은 13.2%다. 10년 전 30만 불 투자가 100만 불로 불어난 놀라운 수익률이다. 주식시장의 두려운 마음 때문에 투자하지 못했다면 나의 투자 돈이 세(3) 배로 불어날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자동차로 여행할 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 도로 공사와 사고 등으로 교통이 복잡하면 천천히 가야만 한다. 기차 건널목에서는 기차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모든 일로 화가 난다고 차에서 내려버리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주식투자도 이와 비슷하다. 주식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하락한다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투자를 포기하면 노후대책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오르고 내림을 받

복하므로 나의 나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야 한다.

*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비율(자산분배)로 투자 위험성을 조절할 수 있는데 나의 투자 목적에 적합한 투자비율인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 분산투자의 개념으로 여러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종목에 어떤 이유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선택한 모든 투자 종목의 전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 투자는 누구나 쉽게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은퇴하며 돈을 너무 많이 모았다고 불평하는 분 지난 30년 동안 한 분도 만나지 못했다. 반대로 은퇴자금이 적어서 후회하는 분들은 많이 만났다. 노후대책이 늦었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그만큼 은퇴자금이 모일 것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66 화랑세기花郎世紀, 11세 풍월주風月主 하종夏宗(7)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언어별 정보는 조금도 없다. 여기서는 다만 신궁이 '발원하는 장소'라는 소독으로 만족해야만 한다.

다음은 5세 풍월주 사다함전 마지막의 사다함의 세계世系에 등장하는 '신궁'이다. 여기서는 내물신궁奈勿神宮으로 나온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본서 '5세 풍월주 사다함전'에서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다만 마지막 문장인 "놀지왕이 이에 심황에게 명하여 내물신궁의 주주로 삼았다" 라는 부분에서 '주'는 아마도 신관神官으로 임명했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리고 8세 풍월주 문노는 신궁에서 윤궁과 결혼식을 올렸다. 김춘추와 문희도 신궁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신궁은 이렇게 혼례와 길례의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11세 풍월주 하종과 하종의 이부동생 수종壽宗을 전군殿君에 봉하는 의식도 신궁에서 치러졌다. 하종은 미실이 남편 세종전군과 낳았고, 수종은 진흥왕과 낳았다. 전군의 아들은 전군이 될 수 없음에도 진흥왕은 미실을 총애했기에 하종을 양자로 삼아 수종과 함께 전군에 봉하였다. 157) 그들을 전군에 봉하는 의식은 수종이 태어난지 77일(158) 되는 날 행하였다. 진흥왕은 미실과 더불어 하종, 수종과 함께 수레를 타고 신궁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하종과 수종의 전군 봉례식을 행하였다. 두 전군의 어미가 된 미실의 기쁨은 더할 수 없었다. 이에 진흥왕은 축하 잔치를 베풀었다.

신궁은 현존하는 포석정과 함께 쌍으로 있었다. 즉 화랑세기에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 포(석)사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포석정의 기능이 후대에 잘못 전해진 것 같다. 927년11월 추운 어느날 견훤이 경주를 침공했을 때, 경애왕은 대적하여 싸우지는 않고, 왕비와 궁녀들, 친지들과 대신들을 데리고 유상곡수를 즐기며 향연을 베풀다가 나라를 잃고 자결을 하였다는 기록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경애왕은 주연을 즐긴 것이 아니라 문노 등의 대영걸을 모신 사당인 포석사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왕이 할 수 있었던 의식, 즉 나라의 안위를 기원하며 호국의 신에게 제사를 올렸음이 더 설득력 있게 보여진다. 당시 경애왕은 이미 후삼국의 정세와 견훤의 침공 및 고려의 구원병이 오고 있음도 알고 있었다. 쇠락한 국력으로 견훤의 군사를 막기에는 중과부적이었다. 음력 11월이면 연중 가장 춥고 일조량이 짧은 시기인데 야외에서 '황음'에 빠졌다는 기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자세한 논박은 본서 '8세 풍월주 문노전'을 참조바람).

새로운 전군들을 위한 축하연이 시작되면서 진흥왕은 태자 이하 왕자, 전군들에게 명하여 미실에게 예를 올리고 어머니라 부르도록 하였다. 당시 동륜태자는 이미 미실과 사통한 바 있기에 역시로 절을 하려하자 이에 미실이 태자는 무릇 왕자/전군들과 다른데 어찌 배례를 하느냐며 절받기를 거부하였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시까지 진흥왕은 동륜태자와 미실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때는 진흥왕 33년(572년), 한편 미실과 더불어 왕의 총애를 다룰 수 없었던 보명이 밤마다 쓸쓸히 궁을 지키고 있었다.

157) 어머니의 신분에서 전군의 아들로 전군이 될 수는 있다. 심지어 친부가 전군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바로 하종의 아버지 세종전군의 아버지 태종은 전군도 아니었지만 세종의 어머니 지소가 태후였기에 세종은 전군이 될 수 있었다. 즉 전군이란 정궁正宮의 소생이 아닌 왕자들이나 정궁이 왕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사통해서 낳은 아들이다. 진흥왕은 미실이 수종을 출산했을 때 너무나 기뻐서 하종을 전군으로 봉하려 했지만, 신하 삼호공三好公의 반대로 잠시 미루었다가, 삼호공을 면직한 후 양자(원문에는 가자假子로 되어있다)로 삼아 전군에 봉하였다.

158) 원문에는 "殿君封禮行于壽宗殿君七十七日전군봉례행우수종전군칠칠일"로 기록되어 있다. 이종욱은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에서 77일로 옮겼고(177쪽), 김태식은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에서 이종욱의 77일로 옮긴걸 잘못이라고 반박하면서, '칠칠일'은 불교의 49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라며 49일로 옮겼다(81쪽)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www.gch.go.kr)

화랑세기 서문에는 화랑의 유래와 변천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서문의 첫 구절은 "화랑은 선도仙道이다. 우리나라에서 신궁神宮을 받들고 대제大祭를 행하는 것은 마치 연나라의 동산, 노나라의 태산과 같다. 옛날 연부인이 선도를 좋아해 미인을 많이 모아 이름하기를 국화國花라 했는데 그 풍습이 동쪽으로 흘러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로 원화源花를 삼게 했다. 지소태후가 원화를 폐지하고 화랑을 설치해 국인國人들에게 그를 받들게 했다." 위 기록을 다룬 상세한 내용은 본서 '화랑세기, 서문(1~4)'의 참조를 바라며, 여기서는 '신궁'에 대해서만 보면 신궁은 대제를 올리는 곳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화랑의 전신인 원화와 화랑이 신궁의 제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마도 그들이 대제를 주관하는 '신관神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음은 4세 풍월주 이화랑전에 등장하는 '신궁'이다. 그런데 이부분은 훼손이 너무 심하여 신궁이란 단어 외에는 알아낼 만한 것이 없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왕... 신은 마땅히 신궁神宮에서 발원하여... 그런즉 맹세하여 언지 못하며... 궁은 무릇 17..." (이하생략)

앞뒤로 더 인용한다고 해서 신궁에 대하여



3.1 운동 및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 헌정 음악회



주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

Saturday, March 16, 2019
at 4:30 PM

Dedication Concert

Philharmonia Boston
Soloists of New England

Granoff Music Center,
Tufts University
20 Talbot Ave, Medford

100

Ticket: Free admission

주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

후원:  주 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 Tufts KSA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소식 H-1B Update

몇주 뒤면 (4월1일) 올해 H-1B 신청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해가 갈수록 H-1B 취득이 힘들어지고 있네요. 올해도 어김없이 작년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주는 올 H-1B 신청자들을 위해 오늘 (3월7일) 있었던 이민국의 공개 전화 컨퍼런스 (H-1B Filing Tips and RFE)에서 다뤘던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참고하셔서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Specialty Occupation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position에 대해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H-1B는 아무 직종이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에 속한 직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위 '사' 자가 들어가는 전문직만이 여기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specialized & complex) 업무를 요구하는 직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직위라도 그 직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업무내용 (job duties)를 어떻게 기술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이민국에서 그 직위를 Specialty Occupation으로 인정할지 안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올해는 누구나 다 쓰는 뻔한 job description이나 job duties로는 추가자료요청 (RFE)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각회사와 각신청자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사항들은 반드시 job description이나 duties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의 Qualification

올해는 specialty occupation 만큼 신청인의 개인 자격조건도 까다롭게 심사하는 항목 중에 하나로 예상됩니다. 학위증 (diploma), 성적증명서 (transcript)와 이력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 제출하시고 재직 증명서 (이전에 일경험이 있으신 분)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이력서는 심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 쉽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많은 뻔한 내용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만 동시에 내용은 자세한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다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또는 '한국에서' 보다는 '한국 서울에서' 등 내용은 가급적 세부적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Filing

- 신청서
 신청에 있어서는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서 (form I-129) 작성에 있어서 주의할 점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항에 뭐라도 기입하셔야 합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냥 공란으로 놔두지 말고 해당사항없음이라 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도 원본이어야 합니다. 전자서명은 아직 이민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혹시 서명하실 분이 출타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사본
 작년부터 판지를 걸어온 부분이긴 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H-1B 신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즉, 원본과 똑같은 사본 신청서를 동시에 보내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거절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 Timing

4월1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는 자동 기각입니다. 올해는 4월1일이 월요일입니다. 요즘 토요일에 보내도 일요일에 배달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신청서는 4월1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이민국에 도착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올해도 5일간 접수를 받고 이 5일간 쿼타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는 마감되며 신청 추첨을 하게

됩니다.

Lottery

올해는 추첨순서가 바뀝니다.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6만개의 쿼타를 대상으로 추첨을 한 뒤 추첨에 탈락한 미국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2만개에 대한 추첨을 추가로 합니다. 모든과정이 random으로 진행된다면 미국석사학위 소지자들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 석사학위 소지자들은 신청서 cover page와 신청서에 미국석사학위 소지자임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대리점 모집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보스톤 전망대

Attila는 왜 우리에게 장식 보검을 보냈을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1973년 경주 미추왕릉 지구의 14호분의 배수로 공사에서 여지껏 보아왔던 신라보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장식 보검이 출토되었다. 한 눈에 이 칼이 신라에서 만들어진 칼이 아니고 대번에 아랍이나 유럽에서 들어온 칼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칼이었다.

발굴 공사 중에 황금 장식 보검이 피장자의 허리와 가슴 부위에 놓여 있었고, 두 쌍의 가는 고리 귀걸이(세형 이식)와 비취옥 2점, 마구 철제 대검이 장식 보검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아주 이색적인 유물은 사자머리 형상의 띠고리 2점(버클)이었다. 피장자가 세형 이식을 착용하고 있고, 큰 칼을 가지고 있으니 남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명의 피장자가 묻혀 있었는데, 진골 계급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비단 조각이 함께 발견된 것을 미루어 진골 귀족의 무덤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두 명의 남자들이 한 무덤에 매장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이다. 보검의 칼집은 소멸되지 오래되고 금장식만 남아 있는데, 장식의 길이는 36cm, 최대폭 9.3cm 인 단검이었다.



장식보검 - 1) 그리스식 물결무늬 2) 테두리는 누금기법으로 금 알갱이로 장식. 누금기법은 로마, 그리스에서 시작한 기법 3) 3개의 켈트식 삼태극 무늬가 돋보임 4) 값비싼 타키석으로 치장



장식보검과 함께 출토된 사자머리 형상의 버클(로마시대 유행했음)



켈트 문양. 장식보검 삼태극 문양

칼자루 끝 부분은 골무형으로 되어있고 가운데에는 스키랑카, 인도에서 생산되는 값비싼 석류석을 박아 치장하였다. 가장자리는 그리스식 소용돌이 무늬(나선무늬)로 둘러져 있고 가운데에는 역시 석류석을 박아 장식하였다. 보검의 표면에 보이는 무늬들은 그리스식 물결무늬(나선무늬), 삼태극 무늬(파무늬), 메달무늬(비잔틴 기법)에 테두리는 누금기법으로 아주 작은 금알갱이를 박아 장식하였다. 누금 기법은 로마, 그리스에서 시작한 기법이다. 세 개의 삼태극 무늬는 일반적으로 태극 무늬 안에 다른 무늬를 새겨넣지 않는데, 장식 보검에서는 삼태극 무늬 안에 꽃봉오리, 나무잎새, 사람머리, 동물형상을 박아 넣는 것은 켈트족이 즐겨 사용하는 기법이었다. 이 보검은 트라키아에서 만들어 8천 Km의 긴 세월을 거쳐 신라 왕자에게 선물한 듯 하다. 대단한 정성이다.

트라키아는 지금 불가리아, 루마니아 지역으로 4-5세기 때에 동로마, 서로마 제국을 굴복시킨 훈족의 왕 아틸라 (Attila, AD 395 - AD 473) 의 근거지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영국의 저명한 사학자 Edward Gibbon (AD 1737 - AD 1794) 이 집필한 로마 제국 쇠망사 제 3권 344페이지에 훈족의 왕 아틸라가 중국 외교 사절에게 보낸 기록이 있다. 전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동쪽으로는 스키타이 사막에 대한 아틸라의 지배력 범위를 규정하기 어려웠다. 확실한 것은 그가 불가강 유역을 지배했고 훈족의 왕은 전사로서 뿐만 아니라 신비한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마법사처럼)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강력했던 Geougen 족의 칸 (Khan) 초차도 모욕하며 복종시켰으며, 중국과도 대등한 관계를 협상하기 위한 외교 사절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 그러나 중국 사서에는 아틸라에 대한 기록이 일절 적혀있지 않고 있다.

쇠망사 기록을 찾아 수고해주신 로웰대학 김병국 교수와 김현주 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당시 중국은 선비, 흉노 등 5호 16국이 할거하던 시대로 그 중 선비족의 북위 탁발씨 현 문황제 (AD 466 □ AD 471)년간으로 신라의 자비마립간 (AD 458 - AD 479)시기와 맞물린다. 학자들은 훈족의 원류를 흉노에게 두고 있다. BC 2세기 이래로 흉노와 중국은 끝을 모르는 전쟁을 계속해 오고 있었다. 마침내 흉노가 제압 당하면서 서기 124년에 흉노가 서쪽으로 1차 서천하여 아랄해 부근의 훈족이 되었고, AD 374년에는 4차로 서천하여 루마니아, 불가리아 지역에 이르게 된다. 흉노의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신라, 가야의 지도 계급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신라 고대 유물의 대가 요시미츠 츠네오 교수는 14호 고분에서 장식 보검과 함께 출토된 사자머리 형상의 버클에서 신라와 트라키아 간의 특별한 유대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 버클은 로마기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4-5세기 경에 그리스, 로마에서 유행하던 품목이었는데, 값비싼 장식 보검과 함께 중국, 고구려, 백제를 제쳐두고 구태여 신라를 택해 보낸 것은 그만큼 훈족과 신라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로마의 유리잔들이 천마총, 황남대총, 서봉총, 금릉총에서 출토되고, 페르시아 사산조의 각배가 중국, 고구려, 백제의 무덤에서 볼 수는 없지만 신라, 가야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D 453년 아틸라는 게르만 부르군트족 출신 일디고를 신부로 맞아드렸다. 평소에도 과음을 즐기던 아틸라는 첫날밤에 술에 취해 잠들었고 그대로 숨이 끊어진 채 사망하였다. 우리가 그의 장례를 보고 놀라는 것은 그가 사망했다는 사실보다, 그의 장례 의식이 우리와 똑같다는 사실이다. 우리처럼 삼오제가 있고, 49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가 사용하던 동복을 깨 버리고, 말을 도살해 문상객과 함께 먹고 말안장과 재갈을 태우고 무기도 태우는데, 신라와 가야에서는 예전에 장례를 치를 때 무기를 태우고 회손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아틸라와 후세의 영웅 징기스칸은 장사를 지낸 다음에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 수 없었고 장례를 도와준 모든 사람이 순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라에서는 지증왕 이후로 순장이 금지되었지만, 가야 대성동 무덤에서는 순장이 계속되었고 고령 지산동 44호분에는 32명이 순장되었다. 신라와 가야가 훈족의 원류일지 모른다는 가설은 경주, 김해, 평양에서 다섯개의 동북이 발견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한인업소록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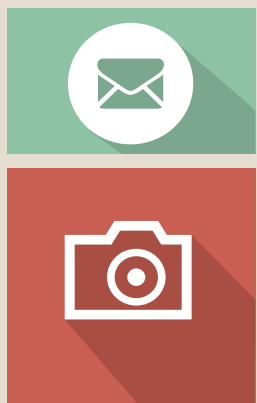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 617.254.4654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p>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p>	<p>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0M, 매매가격 \$640k 플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p>	<p>보스턴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p>
<p>급매매, 매드포드/섬머빌 세탁소 연매상: \$110,000, 좋은 매매가격: \$80,000</p>	<p>보스턴 외곽 동양 식품점, 술, 로타리 연매상 \$800k, 매매가격 \$100k+스타</p>	<p>보스턴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피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플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p>
<p>보스턴 남서쪽, 내일 + 스킨 살롱: 연매상 \$250,000 + 온라인 화장품 세일 (\$400,000+)</p>	<p>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p>	<p>뉴턴 지역 런드로멧 연매상 \$18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p>
<p>급매매,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 연매상 \$265,000, 좋은 매매 가격 \$200,000 고급 동네</p>	<p>보스턴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p>	<p>프레밍햄 지역: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p>
<p>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8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20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80,000 오너파이낸스고려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p>	<p>보스턴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피스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도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p>	<p>보스턴 북쪽 헤어살롱, 아주고급동네 연매상 \$80,000 좋은 렌트</p>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⁹⁹

*전상품 무약정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